

2019

第二届朝鲜半岛研究国际学术会议论文集
제 2 회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地点：延边大学 主办：延边大学朝鲜半岛研究院

장소：연변대학 주최：연변대학조선반도연구원

2019. 7. 26

第二届 朝鲜半岛研究 国际学术会议·大会议程
제 2 회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대회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2019 년 7 월 25 일 목요일		
12:00—	등록	카이로스 호텔
15:00—17:30	식전회의, 환영만찬	옛 마을
2019 년 7 월 26 일 금요일		
08:00—09:00	■개회식 사 회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전영 개회사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원장 박찬규 환영사 연변대학 총장 김웅 축 사 조선사회과학원 부원장 송현원 한국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김성민	연변대학 과학도서관 8 층 회의실(802)
09:00—09:30	기념촬영 및 휴식(다과)	과학도서관 1 층
09:30—11:30	오전	력사분과 과학기술청사제 1 회의실 문화분과 과학기술청사제 2 회의실 경제분과[1], [2] 과학기술청사제 4, 3 회의실
	11:30—12:30	오찬 장사부 삼계탕
	13:00—15:00	오후
15:00—15:30		휴식(다과)
15:30—17:15		오후
	17:15—17:30	휴식(다과)
	17:30—18:00	■폐회식 사 회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전영 폐회사 연변대학 부총장 림철호 인사 말씀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범은실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김우철 한국 교통연구원 부원장 유정복 한국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이갑영 일본 조선대학 조선연구센터 센터장 강성은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원장 박찬규
18:30—	만찬	카이로스 호텔(碧涵軒)



분과별 발표 내용과 일정

【역사분과】

일본의 침략 역사와 중국과 조선인민의 투쟁

제 1 부 사회자: 김성호

장소: 과학기술청사 8 층 제 1 회의실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9:30-9:50	배항섭	1894 년 日本軍의 侵略과 東學農民軍의 反日鬪爭	리홍석
9:50-10:10	홍동현	3.1 운동 이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전환과 대중적 확산	니시무라 나오토

제 2 부 사회자: 장용경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0:20-10:40	강성은	조선근현대사의 민족해방투쟁속에서 3.1 인민봉기의 기억	리용식
10:40-11:00	이용기	3.1 운동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한경림
11:00-11:20	니시무라 나오토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안부조사	방민호

제 3 부 사회자: 강성은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3:00-13:20	정영수	간또대학살의 피신자들과 그 정신적상처	위광남
13:20-13:40	안자코 유카	조선인강제동원문제의 역사적 의미	홍동현
13:40-14:00	위광남	9.18 사변후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의 반동성	고승룡

제 4 부 사회자: 위광남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4:20-14:40	리홍석	동북지구 조선인의 일본령사관경찰 통치에 대한 투쟁	최봉춘
14:40-15:00	한경림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활동에 대하여	배항섭
15:00-15:20	김성호	중국 동북 당조직의 조선민족 항일운동에 대한 방침정책	이용기

제 5 부 사회자: 이동현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5:40-16:00	최봉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창설 및 평가	안자코 유카
16:00-16:20	송현원	특대형의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현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책동에 대하여	정영수
16:20-17:20	좌장 김성호	종합토론	

【문화분과】

코리언 생활문화의 차이성과 공통성

제 1 부 사회자: 허명철

장소: 과학기술청사 8 층 제 2 회의실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9:30-10:00	장 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역사적 지위	김철수
10:00-10:30	리순범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	리홍균
10:30-11:00	박민철	1930 년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맑스주의적 헤겔철학수용	조배준
11:00-11:30	기타		

제 2 부 사회자: 박영균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3:00-13:30	도지인	전후 1950 년대 남북여성의 의복문화	서옥란
13:30-14:00	리용식	중국조선족전통문화발전과 그 특징 및 영향	전영선
14:00-14:30	김진국	상률가의 작가와 문학사적 지위문제	박재인
14:30-15:00	김진미	재일조선학생들의 글짓기현상모집 입선작품을 통해 보는 통일의식의 특징	김종곤

제 3 부 사회자: 리순범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5:20-15:50	최향단	해방 후 중국 조선족 지역의 정보문화와 매체발전의 동향	남경우
15:50-16:20	김광조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에 대하여	김성희
16:20-16:50	김종균	코리언 민속을 통해 본 사후세계(死後世界)의 인식 연구	허명철
16:50-17:20	기타		

【경제분과 1】

책임과 사명 - 조선반도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새로운 경로 탐색

제 1 부 사회자: 백성호

장소: 과학기술청사 8 층 제 4 회의실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9:30-10:00	동려민	중조 관광협력 변화와 전망	이창희 김은수 이상우 최철호 김미화
10:00-10:30	김 영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그 개발방향에 대하여	
10:30-11:00	김상태	조선반도 관광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11:00-11:30	진장원	동북아시아에서 국경관광의 가능성과 국제순환쿠르즈철도 도입	

제 2 부 사회자: 안병민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3:00-13:30	안국산	중국의 “一帶一路” 倡議와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협력	조건식 이백진 서종원 양하은
13:30-14:00	장춘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관계법의 주요내용	
14:00-14:30	이 호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철도 협력방안	
14:30-15:00	최장호	신한반도체제와 남한의 극동러시아경제협력	

제 3 부 사회자: 장춘철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5:20-15:40	장동명	신시대 중국과 조선반도 경제협력에 관한 사고	박충환 이정균 손진국
15:40-16:00	리창혁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과 그것이 동북아시아 물류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16:00-16:20	백승걸	조선반도 도로인프라구축효과와 남북협력방안	
16:20-16:40	이성우	북방물류시장 연결과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	
16:40-17:00	조진행	동북아컨테이너항만의 경쟁위치 분석-대련항, 영구항을 중심으로	

【경제분과 2】

"일대일로" 창 의 와 조 선 반 도

제 1 부 사 회 자 : 권 철 남

장 소 : 과 학 기 술 청 사 8 층 제 3 회 의 실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9:30-10:00	이갑영	일대일로의 성격연구: 적색자본 운동	박찬규 김은철 송승석 범은실
10:00-10:30	최성우	문서기록을 통해 발굴한 "일대일로"창의와 조선반도와 연관된 분석	
10:30-11:00	조형진	동북아와 일대일로	
11:00-11:30	장혜지	일대일로와 동북아 접점	

제 2 부 사 회 자 : 송 승 석

시간	발표	제 목	토론
13:00-13:30	석철원	조선에서의 건설성과와 인민들의 경제문화적권리의 향상	이현주 조형진 전 영
14:00-14:30	권철남	조선의 교통기초시설의 현황과 협력 전망	
14:30-15:00	김지환	근대 중국 동북지역 철로네트워크의 형성	
15:00-15:20	조순희	투자설명회	
	한금희		

제 3 부 사 회 자 : 조 순 희

시간	발표	제 목	讨论人
15:20-15:50	이정희	일제강점기 조선화교 기업가에 관한 연구	김남희 김선일 장박원
15:50-16:20	달지강	조선반도의 새로운 변화로 동북아 경제권 구성을 추진하자	
16:20-16:50	범은실	중국 동북지역 동부관광경제벨트 건설에 대한 기본탐색	
16:50-17:20	리준식	지경학적견지에서 본 조선반도경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목차

2019

[역사분과] 일본의 침략 역사와 중국과 조선인민의 투쟁

1894 년 日本軍의 侵略과 東學農民軍의 反日鬪爭.....	배항섭(1)
3.1 운동 이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전환과 대중적 확산.....	홍동현(24)
조선근현대사의 민족해방투쟁속에서 3.1 인민봉기의 기억.....	강성은(38)
3·1 운동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이용기(50)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안부조사.....	니시무라 나오토(70)
간토대학살의 피신자들과 그 정신적상처.....	정영수(85)
조선인강제동원문제의 역사적 의미.....	안자코 유카(99)
9.18 사변후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의 반동성.....	위광남(112)
동북지구 조선인의 일본령사관경찰 통치에 대한 투쟁.....	리홍석(133)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활동에 대하여.....	한경림(144)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창설 및 평가.....	최봉춘(171)
중국 동북 당조직의 조선민족 항일운동에 대한 방침정책.....	김성호(186)
특대형의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현 일본정부의 과렴치한 책동에 대하여.....	송현원(204)

[문화분과] 코리안 생활문화의 차이성과 공통성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역사적 지위.....	장 수(213)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	리순범(225)
1930 년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맑스주의적 헤겔철학수용.....	박민철(234)
전후 1950 년대 남북여성의 의복문화.....	도지인(251)

중국조선족전통문화발전과 그 특징 및 영향	리용식(265)
상률가의 작가와 문학사적 지위문제	김진국(275)
재일조선학생들의 글짓기현상모집 입선작품을 통해 보는 통일의식의 특징	김진미(291)
해방 후 중국 조선족 지역의 정보문화와 매체발전의 동향.....	최향단(302)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에 대하여.....	김광조(313)
코리언 민속을 통해 본 사후세계(死後世界)의 인식 연구.....	김종균(322)

[경제분과 1] 책임과 사명 - 조선반도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새로운 경로 탐

중조 관광협력 변화와 전망.....	동려민(344)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그 개발방향에 대하여.....	김 영(360)
조선반도 관광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김상태(369)
동북아시아에서 국경관광의 가능성과 국제순환쿠르즈철도 도입	진장원(389)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창 의와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협력.....	안국산(4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관계법의 주요내용.....	장춘철(425)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철도 협력방안.....	이 호(436)
신한반도체제와 남한의 극동러시아경제협력	최장호(446)
신시대 중국과 조선반도 경제협력에 관한 사고.....	장동명(453)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과 그것이 동북아시아 물류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리창혁(463)
조선반도 도로인프라구축효과와 남북협력방안.....	백승걸(463)
북방물류시장 연결과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	이성우(476)
동북아컨테이너항만의 경쟁위치 분석-대련항, 영구항을 중심으로.....	조진행(486)

[경제분과 2] "일대일로" 창 의와 조선반도

일대일로의 성격연구: 적색자본 운동	이갑영(491)
---------------------------	------------

문서기록을 통해 발굴한 "일대일로"창의와 조선반도와 연관된 분석.....	최성우(505)
동북아와 일대일로.....	조형진(536)
일대일로와 동북아 접점.....	장혜지(545)
조선에서의 건설성과와 인민들의 경제문화적권리의 향상.....	석철원(550)
조선의 교통기초시설의 현황과 협력 전망.....	권철남(559)
근대 중국 동북지역 철로네트워크의 형성.....	김지환(570)
일제강점기 조선화교 기업가에 관한 연구.....	이정희(592)
조선반도의 새로운 변화로 동북아 경제권 구성을 추진하자.....	달지강(606)
중국 동북지역 동부관광경제벨트 건설에 대한 기본탐색.....	범은실(628)
지경학적견지에서 본 조선반도경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리준식(634)

2019

第二届朝鲜半岛研究国际学术会议
제 2 회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

력사분과

일본의 침략 력사와
중국과 조선인민의 투쟁

1894년 日本軍의 侵略과 東學農民軍의 反日鬪爭

裴 亢 燮
(成均館大)

목 차

머리말

1.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척왜양(斥倭洋) 운동
 - 1) 개항기의 대일인식과 임진왜란
 - 2)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척왜양운동
2. 동학 농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의 침략과 농민군의 대응
 - 1) 개항 이후 일본군의 조선 침략 준비
 - 2)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과 일본군의 침략
 - 3) 일본의 경복궁 강점과 청일전쟁 도발
3. 동학농민군의 제 2 차 봉기와 반일투쟁
 - 1) 제 2 차 봉기 이전의 반일 투쟁
 - 2) 제 2 차 봉기와 반일투쟁의 전개

맺음말

머리말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전쟁은 “반봉건”과 “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일대 민중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은 청일전쟁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동학농민전쟁이 가진 이러한 역사적 의의 때문에 그 동안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외국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¹ 이 글은 이

¹ 박종근 저, 박영재 옮김,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배향섭, 「반일투쟁의 전개」, 신편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국사편찬위원회, 1999, 448~486쪽; 나카즈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0;

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반일투쟁을 그 이전 시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대일인식, 그리고 이른바 교조신원운동시기 동학 교도들의 반일운동과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서 일본군이 개입하게 되는 과정과 그들의 목적, 경북궁 강제점령 등 침략행위, 그리고 2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을 무참하게 살육하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했다.

임진왜란 때 형성된 일본군에 대한 경멸감과 적대감은 그 이후에도 민간에서 전승되어 왔다. 그것은 <용담유사> 같은 동학경전에 일본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이 등장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의 침략행위가 노골화함에 따라 적대감을 더욱 심화해갔다. 이에 따라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대대적인 척왜양 운동이 일어났고, 1894년 3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和約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으며, 조선 정부는 일본 측에 거듭하여 병력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대륙 진출을 위해 청국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군은 철병을 거부하고 드디어 경북궁을 강점한 데 이어(음 6월 21일), 곧바로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6월 23일). 이후 농민군 지도부의 관심은 급격히 反日문제로 경도되었으며, 일본군의 침략 행위와 농민군 진압이 고골화하자 드디어 1894년 9월 10일경 “나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며” 반일을 기치로 내걸고 제2차 봉기를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침략행위에 따라 초래된 민족적 위기를 당면 과제로 설정한 전봉준은 士族이나 지주층까지도 포괄하는 ‘민족적 대연합’을 구축하여 일본군에 맞서고자 하였다. 전봉준은 항일투쟁을 위해 보수유생층과 관료들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층의 연합전선을 추구하고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은 농민군 진압만을 위한 별도의 부대를 추가로 출병하여 농민군을 본격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 앞에 농민군은 패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농민군의 뜻은 좌절되었다. 다음해 초까지 이어진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과정은 근대 일본이 해외에서 벌인 최초의 대규모 ‘학살’이었다.

이후 조선은 사실상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청나라도 半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여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의 먹잇감으로 되고 말았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전쟁은 조선근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

井上勝生,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 2002;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を中心に」, 歴史學研究 762, 2002

개에도 중요한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다. 또한 일본군의 침략행위와 그에 대한 조선 민중 및 농민군들의 대응과 저항은 이후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농민군의 지향이나 체제구상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척왜양운동

1) 개항기의 대일인식과 임진왜란

개항 이후 조선인들의 대일관에는 이전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침략행위, 특히 임진왜란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² 그것은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의 경전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서양은 싸워서 승리를 취하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여 서양세력의 침략을 경계함과 동시에 “개같은 왜적놈이 전세 임진 왔다가서” 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임진왜란의 경험이 반추되면서 일본에 대한 강한 경멸감과 동시에 적개심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³ 그러나 이때는 1860년에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시켰고, 1866년과 1871년에 프랑스와 미국 함대의 조선 공격 등 외세에 의한 구체적 침략행위가 가시화 하였지만, 아직까지 일본에 의한 침략행위는 물론 일본과의 구체적인 접촉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반일 적대감은 다분히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임오군란.갑신정변을 거치며 ‘宗社를 위협하는 야심국’으로 인식된 데서도 일 수 있듯이 구체적인 적대의 대상이 되어 갔고, 그런 일본과 결탁한 '개화당'도 ‘겨레의 배반자’, ‘매국지적(賣國之賊)’으로 규정되었다.⁴ 민중들과 개화파 간에는 화해하기 힘든 골이 파이고 말았으며, 친일적 인물이나 일본과 연결된 움직임은 배척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⁵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적대적

² 개항 이후 조선민중들의 일본관에 대해서는 배항섭, 개항기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27, 1994 참조.

³ 「안심가」, 용담유사

⁴ 송병기 역, 윤치호국한문일기, 1984년 2월 30일조, 탐구당, 1975

⁵ 갑신정변이나 임오군란은 비록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전국적인 것이었다. 한 예로 임오군란은 불과 며칠 뒤에 멀리 원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1882년 6월 12일에는 원산에서도 소요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高尾新右衛門 編, 원산발전사, 元山: 大正5[1916], 44 4쪽)

인식은 점차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 깊이 연결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일본상인들의 내지행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침투가 가속되었고, 일본에 대한 인식도 한층 구체화해 나갔다. 일본 상인들은 이른바 청전매매(靑田賣買) 등 각종 방법으로 곡물을 방출함으로써 곡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농민들의 경제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⁶ 또한 일본 상인들 가운데는 고리대업을 겸하여 족장까지 하는 등 주민들을 침탈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⁷ 그 과정에서 살인과 약탈이 뒤따르기도 했다.⁸ 이에 따라 심화해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도처에서 양국인의 크고 작은 충돌을 야기하였고, 일본상인들은 조선인들에 의해 곳곳에서 상행위를 방해받았다.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악화되어 간 일본 대한 적대감은 1888년 서울에서 일어난 “어린이 유괴소동”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서울의 하층민 사이에는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이 어린 아이의 염통과 눈알을 도려내어 약에 쓴다, 혹은 스프 등 요리를 한다거나 사진의 재료로 쓴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린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는 풍문이 번져갔다.¹⁰

이와 같이 살육과 약탈, 그리고 “야만적” 행동을 수반하였던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에 대해 민중들은 임진왜란의 기억을 상기하며, 일본인을 “생존을 위협하는 원수”로 혹은 “우리고유의 생활과 문화의 파괴자”로 규정하였다. 갑신정변을 계기로 일본은 “종사를 위협하는 야심국”으로 인식되었고, 여기에 “경제적 약탈자”, “고유문화의 파괴자”라는 이미지가 결합함으로써 대일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2)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척왜양운동

민중에 의해 집단적이고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1892년 말부터 전개된 동학

⁶ 김경태, 갑오이전 방곡령사건과 일본의 부당배상 요구, 국사관논총 53, 1994 참조

⁷ 각사등록 8권, 1889년 9월 12일, 337쪽; 각사등록 8권, 1887년 4월 12일, 327쪽; 비변사등록, 1892년 3월 10일 등 참조.

⁸ 각사등록 13권, 1889년 10월 26일, 73 74쪽;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1), 문서번호 253, 281, 8835, 973, 982일성록, 고종 21년 7월 18일, 24년 8월 11일, 27년 6월 20일 등 참조

⁹ 각사등록 13권, 1887년 1월 23일, 210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214쪽 및 237쪽 참조

¹⁰ 이 때에도 날이 갈수록 일본인들에 대해서만 그런 소문이 집중되었으며, 이 때문에 일본인의 집이 투석을 당하기도 하였다. 구한국외교문서 (일안1), 문서번호 1182번; 경성부사 상, 550 551쪽; 같은 책, 하, 594쪽;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저, 김철 역, 언더우드부인의 조선생활: 상투쟁이와 함께 보낸 십오년 세월, 뿌리깊은나무, 1984, 27쪽

교도들의 斥倭洋운동이었다.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일군의 동학교도들이 교조의 신원과 관리들의 침탈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공주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¹¹ 이때 동학교도들은 교조의 신원과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 종교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서학에 대한 반대와 日商의 상행위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척왜양 구호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공주집회에 이어 11월 3일에 열린 전라도 삼례집회와, 12월 1일 충청지역의 교도들과 전라도 지역의 일부 동학도들이 모인 제2차 공주집회에서는 외세와 관련된 요구나 구호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동학교단에서 복합상소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6일 보은에 都所를 마련한 뒤 정부에 보낸 <朝家回通>이라는 상소문에서도 외세에 대한 반대 요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이 척왜척양 구호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1893년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그 중심에는 동학농민전쟁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전봉준이 있었다. 전봉준은 일찍부터 ‘반봉건’뿐만 아니라 ‘반외세’ 과제를 동시에 포착하고,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연합을 構想하며 서울을 드나들며 정국의 추이와 외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그가 동학에 입도한 것은 1890년 전후한 시기였다. 전봉준은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를 계기로 동학교단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였으며, 1893년 1월부터는 동학교단과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척왜양운동을 시작하였다.¹²

우선 전봉준은 1893년 1월 10일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 군의 衙門에 붙였다. 이어 2월 10일경에는 전라도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參禮에서 두 번째로 집회를 열고, 전라감사에게 또 다시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는 이전의 교조신원운동과 달리 교조의 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반면 거의 전적으로 斥倭洋을 통한 輔國安民이 강조되면서 왜와 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지가 처음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이 무렵 삼례의 동학교도들은 전라

¹¹ 여기에 대해서는 義煥, 1892 3年の 東學農民運動과 그 性格, 韓國史研究 5, 1970;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982;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 (上)(下), 韓國史研究 48 49, 1985; 和,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1), 역사비평 계간7호, 1989; 張泳敏, 東學의 大先生 伸冤運動에 관한 一考察, 白山朴成壽教授華甲紀念 叢韓國獨立運動史의 認識, 1991; 박찬승, 1892, 1893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1993;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1995 참조

¹² 척왜양운동의 자세한 전말에 대해서는 배항섭, 1893년 동학교도와 大院君의 擧兵 企圖 韓國史學報 12, 2002 참조

도 각 군의 관아에도 “倭洋을 剿滅하기 위해 창의하니 智勇之人이 있으면 官에서 추천하여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檄書를 붙였다.

같은 무렵 서울에서도 척왜양 운동이 전개되었다. 1893년 2월 11일에 시작된 동학교도들의 광화문 복합상소운동을 전후한 시기 서울의 외국공관 등에도 척왜양 방문이 연속적으로 나붙었다. 이 가운데 2월 18일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에 붙은 격문에는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무장하여 공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앞서 3월 2일에는 일본공사관 벽에 게시된 격문에는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 때의 참혹함을 상기하며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¹³ 이어 1893년 3월 보은집회 때에도 “왜적과는 해와 달을 같이 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을 같이할 수 없는 개나 돼지 같은 원수”라고 하는 극단적인 반일감정이 표출되었다.¹⁴ 광화문 복합상소와 보은집회 시기에는 서울과 보은 뿐만 아니라, 경향 각지에서 척왜양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척왜양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를 전복하려는 정변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진행되었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이유로는 동학 교단 지도부의 비협조를 지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척왜양 구호가 가진 한계가 있었다. 척왜양 구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였다. 예를 들면 日商에 의한 미곡 유출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쳐 일부에서는 일상의 미곡유출에 대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정도였다. 따라서 ‘교조신원운동’ 당시에조차 일찍부터 이에 대한 반대요구가 제기되었고, 농민전쟁 당시에조차 중요한 요구조건 중의 하나였다.¹⁵ ‘교조신원운동’ 당시에조차 동학교도들은 倭洋이 나라의 심복에까지 들어와 준동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우리의 利源을 빼앗아 가는 外夷를 온 나라의 義旅와 함께 협력하여 물리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몇 명의 일상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또 농민군들도 통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항장 밖에서 행해

¹³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2), 문서번호 2280 附 東學壁報

¹⁴ 이때 척왜양을 전면에 내걸고 보은 관아에 붙은 동학교도들의 통문의 발신 주체는 <東學倡義儒生等>으로 되어 있었다.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894年の 農民戰爭篇 附東學關係資料 1, 東學書 (이하 동학서) (서울, 여강출판사, 1985), 60-67쪽.

¹⁵ 김윤식, 續陰晴史 (上), 324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210쪽 참조.

¹⁶ 聚語, 東學亂記錄 上, 국사편찬위원회, 1959, 123쪽

지는 잠상, 밀매행위를 반대하고 있었다.¹⁷

따라서 각지에서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전국차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처할 상황은 아니었다. 일본에 의한 구체적인 침략행위가 가시화한 상황은 아니었고, ‘宗社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침략행위나 여기에 준하는 사건이 매개되지 않고서는 ‘의병’의 봉기 등 집단적인 물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웠다.¹⁸ 실제로 1893년에 전개된 척왜양 운동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공관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시기에 변혁지향세력은 척왜와 척양을 주장하며 거병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반일을 주장하는 민중들의 움직임은 1893년 11월에 일어난 개성민란에서 난민들이 “일본인을 붙여서 살게 하는 자는 그의 집을 부술 것”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였다.¹⁹ 이후 1894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이 주도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났지만, 여기에서도 척왜양 구호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2. 동학 농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의 침략과 농민군의 대응

1) 개항 이후 일본군의 조선 침략 준비

일본에서는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을 조선에 침략할 기회로 포착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1882년 무렵부터 청일간의 전쟁을 예견하며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던 일본 군부에서는 일찍부터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야마가타(山縣有朋) 내무상이던 1888년 1월에 기초했던 <군사의견서>에도 시베리아 철도가 개발됨에 따라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이 때 일본은 러시아의 조선침략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

¹⁷ 全琫準供草 再招問目, 東學思想資料集 壹, 亞細亞文化社, 1979, 340; 대한계년사 (상), 86쪽

¹⁸ 전봉준이 2차 봉기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의 침범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그것을 국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전봉준은 군사적 침략행위가 아닌 단순한 통상행위에 대해서는 침략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全琫準供草 再招問目, 340쪽). 이후의 의병전쟁은 물론이고 왜에 대한 집단적인 항의나, 공격이 일어난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제주도 어민들의 운동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¹⁹ 개성민란에 대해서는 Bae, Hang-seob, “Kaesŏng Uprising of 189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5, no.1 Feb. 2010. 2. pp.93-120

다. 아오키(青木周藏) 외상에게 제시한 <외교책략론>에서는 조선반도가 일본의 “이익의 초점”이라고 규정하면서, 영독과 연합하고 청일동맹을 맺어 조선을 공동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오키는 같은 해 5월 야마가타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아열국의 權衡>이라는 글을 썼다. 우선 러시아를 시베리아로 구축하고 조선, 만주, 연해주를 일본의 속령으로 하는 것이 장래의 목표이며, 그 중 조선에 대해서는 “강경 수단을 써서 간섭주의를 시행하고”, 맹약을 맺어 “조선을 우리의 수중에 움켜쥐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²⁰ 1893년 10월에도 야마가타(山縣有朋) 대장의 <군비의견서>에는 “대 러시아 전쟁이 10년이 지나지 않아 터진다면 전략 요충지인 조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빠른 기회에 대 청나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전제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한 야마가타의 작전계획이 참모본부 제2국장 오가와 유지(小川又次) 대좌에 의해 이미 1887년에 완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²¹

야마가타의 주장은 당시에는 각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894년 실제로 추진된 대조선 정책이 이미 수년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이토록 중시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선 및 이익선 수호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1890년 무렵 일본 정부에서 마련한 외교책략에는 우선 조선이 일본의 이익선임을 공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을 침략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천명되어 있었다. 국가독립자위의 길은 첫째, 주권선을 지켜 타인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 이익선을 방호하여 자국의 유리한 지역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주권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책이 천명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이었다. 곧 조선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일본이 취한 대륙정책의 출발점이고 핵심이었다.²² 군비증강을 통해 청국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에게 호기가 찾아들었다. 그것은 바로 1892년 말부터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교도들의 집단적 움직임이었고,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이미 명치유신 직후부터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정보 첩보활동을 시작하였던 일본은 1893년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자 상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을 투

²⁰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허남린 옮김, *청일전쟁*, 소화, 1997, 34~35쪽

²¹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허남린 옮김, *청일전쟁*, 소화, 1997, 68~69쪽 참조

²²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앞의 책, 35쪽

입하는 방식으로 특히 동학교도들의 동태에 관한 정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893년 12월에는 청일전쟁이 곧 전개될 것임을 예상하고 1893년 12월 23일, 다음해 5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일본군의 전시편성을 앞당겨 마무리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정보 및 첩보활동을 위해 군함 筑波호와 大島호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 3월말까지 조선의 도로, 조선에 있는 서양 각국의 선박,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상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첩보 및 정보활동을 추진하였다.²³ 1894년 3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기회를 조선침략과 청일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2)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과 일본군의 침략

일본은 조선에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조선에 출병할 빌미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선정부가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은 재빨리 조선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는 주장은 4월 12일 招討使 洪啓薰이 親軍統衛使 閔泳駿에게 청병 一枝隊를 요청할 것을 제의한 데서 처음 제시되었으며,²⁴ 민영준은 이후 청군 援兵 문제를 袁世凱와 여러 차례의 논의하였고, 4월 29일에는 청병을 요청하는 공문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²⁵ 4월 30일 밤에는 時原任大臣會議를 열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할 것을 결정하고 이 같은 조선정부의 뜻을 袁世凱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²⁶ 이에 따라 5월 5일 오후 6시경에 聶士成이 지휘하는 청군 910명이, 5월 6일과 7일에 걸쳐 葉志超가 이끄는 1,550명이 아산만에 도착하였고, 5월 21일에는 400명이 추가로 아산만에 도착하여 모두 2,865명의 병력이 출병하였다.²⁷

한편 언제라도 파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일본은²⁸ 조선이

²³ 姜孝叔, 앞의 글, 19쪽

²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국사편찬위원회, 144쪽

²⁵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전말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9~264쪽; 淸國之部, 동학농민전쟁관계자료집 4(東學黨變亂 際日淸 國韓國出兵雜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37~346

²⁶ 甲午實記, 東學亂記錄 上, 8쪽

²⁷ 參謀本部 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淸戰史 制1卷(후쿠지마 현립도서관 소장), 77~82쪽; 重夏, 南征日記, 총서 6, 229~233쪽; 湖電記, 125쪽; 東匪討錄, 33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76쪽, 83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76~177쪽.

²⁸ 일본에서는 4월 16일 참모총장이 포병 소좌 伊地知幸介를 부산으로 파견하여 재부산 본봉영사관의 무관 및 총영사 등과 협의하고 재경성 대리공사 스기무라(杉村濬)와 통신을 통해 농민전쟁의 상황을 파악한 후 4월 26일 동경으로

청에 원병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자, 4월 29일에 열린 임시각의에서 무쓰(陸奥宗光) 외상이 제출한 출병 결의안을 채택하였다.²⁹ 이어 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 청에 원병을 요청한 것보다 하루 빠른 4월 29일 일병의 조선 출병에 대한 일본 천황의 재가가 떨어졌다. 이날 밤 무쓰 외상과 하야시(林董) 차관은 가와카미(川上操六) 참모차장을 관저로 불러 청국군 병력은 5,000명이 넘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이 필승을 기하기 위해서는 6,000~7,000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³⁰

이어 5월 2일에는 참모본부 내에 대본영을 설립하는 천황의 승인이 떨어졌고, 제5사단에 동원령을 발포하면서 보병 제11, 21연대를 중심으로 혼성여단을 편성하였다. 5월 4일에는 1884년 갑신정변 직후 청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天津條約 제3조의 공동출병 규정에 의거하여 청국측이 청병 출병을 통보해오자 일본도 즉각 주북경 대리공사를 통해 친진조약에 따라 공관과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병한다는 사실을 청국에 통고하였다. 일단 1개 혼성여단 파견을 결정한 일본은 5월 7일부터 일본군을 인천에 상륙시키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5,000여 명의 군대를 상륙시켰다. 6월 8일까지 인천항에 파견된 일본군의 규모는 혼성여단 7,857명, 제2전선 가설대 345명, 군악대 58명, 해군원 943명, 운송선 승조요원 80명 등 9,300명 정도에 이르렀다.³¹ 이는 일본 공사관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비추어 볼 때도 터무니없이 많은 병력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5월 4일 오후 주한 일본공사관에게 조선의 외무독판을 만나 1882년의 제물포조약에 따라 다시 일본공사관에 호위병을 둘 것임을 통보하도록 했다.³² 일본은 5월 6일 일본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해군 육전대 488명과 순사 20명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이 병력은 일본공사 오오토리(大鳥圭介)의 지휘 하에 저녁 7시 경 남대문으로 입경하였고, 포대는 수로를 통해 그 보다 앞선 오후 5시경

돌아갔다. 參謀本部 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 制1卷, 94쪽.

²⁹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때 청국에 승기를 제압당해 실패를 자초한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국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해 신속히 서울에 진입하여 청군을 저지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정하였다 (木下武蔵의 글, 59쪽).

³⁰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앞의 책, 82쪽

³¹ 강효숙, 앞의 글, 19쪽

³² 馬場華村の支那官報, 269쪽

에 입경하였다.³³ 일본군이 조선에 출병하는 명분은 조일관계의 면에서는 1882년에 체결된 제물포조약 제5항, 청일관계의 면에서는 1885년 체결된 천진조약 제3항에 근거한 것이었다.³⁴

그러나 조선정부에서는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이후 점차 관군이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미 아산만에 도착해 있던 청나라 군대에게 상륙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³⁵ 일본군에게도 철수를 요구하였다. 일본 측에 대해서는 5월 5일 외무독판 조병직이 일본군의 파병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5월 20일 경까지 거듭 거듭 일본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 공사는 일본군의 파병이 1882년에 체결된 제물포조약 제5관의 “주둔병을 파견하여 경비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철병을 거부하였다.³⁶ 일본측은 5월 9일 보병 11연대 1,050명을 인천에 상륙시켰고, 5월 10일에는 기왕에 경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해군 병력 488명을 인천으로 보내는 대신 그 2배가 넘는 육군병력 1,050명을 경성에 주둔시켰다.³⁷ 5월 12일에는 2,700명의 추가 병력이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에서 수차례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일본측은 군대의 철수를 거부하였다. 조선 정부는 5월 15일 일본군의 수가 청나라 군대보다 오히려 많은 4~5천명에 달하고 아산에 있는 청나라 군대와 대치하듯이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 공사관에서는 5월 19일에도 “南匪를 이미 평정하여 都下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끝내 믿을 수 없다며 철병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청국 군대 역시 조선정부의 상륙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아산에 상륙하였다.³⁸

이러한 사정에 따라 정부는 양국군대의 철병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농민군이 진압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했다. 조정이 서둘러서 농민군 측의 강화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결국 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을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여 농민

³³ 박종근 저, 앞의 책, 17쪽. 이 때 일본 공사관에서는 호위 해군 병사가 300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74쪽).

³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16쪽, 118-119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5쪽

³⁵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7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4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2쪽

³⁶ 자세한 전말에 대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255-27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69-272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1-15쪽 참조.

³⁷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19-20쪽 참조.

³⁸ 南征日記, 총서 6, pp.231-232.

군을 무마한 다음 퇴로를 열어주고 물침표를 제공함으로써³⁹ 농민군을 해산시켜야 했다. 농민군도 사정이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5월 6일 청국 군대가 아산에 상륙하고, 5월 7일 오후에는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군대를 이끌고 입경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5월 8일 농민군은 아침 자신들이 요구하는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⁴⁰ 농민군 지도부로서는 청일 약국 군대의 출병에 따라 조선이 청일간의 戰場으로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외세’는 ‘봉건성’과 마찬가지로 다만 농민군의 공격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행동과 생각을 규정하는 현실적 조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집강소 시기”와 제2차 봉기 시기 농민군의 생각과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일본의 경복궁 강점과 청일전쟁 도발

5월 8일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해산함으로써 농민전쟁은 일단 진정되었지만, 청국과 戰端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 정부에서는 농민군의 완전한 해산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부심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외무대신 陸奥宗光은 5월 12일 주한일본공사 大鳥圭介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하였다

우리 군대의 철수가 지연되는 이유로 삼기 위해 각하는 공공연한 방법을 써서 공사관의 직원이나 영사관의 직원을 폭동이 일고 있는 지방에 파견하여 실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실황조사는 가능한 한 느리게 할 것이며, 그 보고서는 고의로라도 평화로운 상태와는 반대가 되도록 작성케 할 것을 절망한다.⁴¹

이는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의 전단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부심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인 정탐원들에게도 전주화약 직후 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재발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⁴²

전주화약 이후 해산하는 경로나 일부 인근 지역에서 소규모의 농민군에 의한

³⁹ 湖招討騰錄 , 209~ 218쪽

⁴⁰ 湖電記 , 15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95쪽 ; 大阪毎日新聞 , 明治 27年 7月 10日, 총서 23, 252~256쪽

⁴¹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58쪽, 123쪽

⁴²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9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2~ 113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8쪽

부자집이나 吏胥輩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분위기였다. 조정에서도 농민군들이 완전히 해산한 것은 아니고 곳곳에 모여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⁴³ 전주에 있는 경군을 서둘러 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청국 군대와 일본군대의 도성입성에 따라 우선 국왕부터 신변보호가 요청되었다는 사정도 있지만,⁴⁴ 무엇보다 청일양국, 특히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⁴⁵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군은 조선의 철병요구를 일축했으며, 청국이 제안한 공동철병 제의도 거부하였다.⁴⁶ 나아가 일본은 청일전쟁의 사단을 마련하기 위해 청일양국에 의한 조선의 내정개혁을 제의하였다. 일본공사관의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는 5월 10일 청일 공동 철병에 반대하면서 내정개혁을 조선정부에 권고할 것을 일본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5월 13일 내정개혁안을 청국정부에 제안하였지만, 청국 정부는 조선의 변란이 진정되었고, 내정개혁은 “스스로 다스리고 고치는 일”이므로 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등을 지적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5월 23일 대본영에서는 조선정부로부터 가설권을 획득하여 한성-부산간 군용전선을 가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것은 청일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한성으로부터 청국 북부를 우회하여 상해로에서 일본으로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에 반대하였지만, 일본은 6월 16일 조선정부에 군용전선 가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선가설에 착수하였다. 6월 26일에는 한성-부산간에는 20여개 지점에 병참부가 설치되었다. 7월 2일에는 한성-부산간의 도로수선부대가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전선가설이 거의 완성되었다. 7월 30일에는 그 규모가 공병제6대대 제1중대, 공병 제3대대 제1중대, 제3사단공병대 1개중대 반, 석공 300명, 井戶堀職人과 樋職役 23명, 제1군용 전선가설대, 일본인 인부 2,162명으로 확대되었다. 군용전선가설대와 병참부, 도로수선대는 청일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임무가 점차 항일하는 조선 민중과 농민군 진압으로 확대되어 갔다.⁴⁷

⁴³ 湖招討騰錄 , 213~214쪽 ; 湖電記 , 134~136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1~112쪽

⁴⁴ 湖電記 , 132쪽, 134쪽, 139~140쪽, 149~151쪽 참조.

⁴⁵ 그것은 5월 14일 외무독판 조병직이 일본공사 앞으로 보낸 글에 “남도의 비도들이 이미 평정되어 본국의 군병들도 철수하려고 하는데, 귀병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라고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264쪽

⁴⁶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앞의 책, 91~92쪽 ; 박종근 저, 앞의 책, 27~33쪽

⁴⁷ 강효숙, 앞의 글, 19~21쪽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5월 19일 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단독개혁 강행을 선언하고 외무성 문서과장 카토오 마스오(加藤増雄)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 정부의 단독개혁 지시를 받은 오오토리 공사는 5월 23일 고종에게 내정개혁위원을 임명하고 개혁에 관해 자신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일본군의 철병을 선결문제로 삼으며, 자주적으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⁴⁸ 실제로 조선 정부에서는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에 대응하여 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내정개혁을 빌미로 한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6월 11일 내정개혁을 위한 기구인 校正廳을 설치하고 관관과 협관 등을 임명하였다.⁴⁹

그러나 일본 정부는 5월 25일 일본 혼성여단의 전병력을 경성부근으로 집결시켰다. 이는 조선이 속방임을 인정할 경우 병력으로 왕궁을 포위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였다.⁵⁰ 이미 이때부터 경복궁 점령은 계획되어 있었다. 또 6월 10일 일본 대본영에서는 조선 주둔 일본군 여단장 오오시마(大島義昌)에게 “청국이 장차 군병을 増發하며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사실상 청일전쟁의 개전을 허락한 것이다.⁵¹ 이 점에서 6월 21일 자행된 일본군의 경복궁 강제점령은 사실상 청일전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6월 19일 무렵에는 조선의 국유 전선을 일본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다.⁵²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내정개혁을 강요한 일본은 조선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치자 6월 18일에는 “청군 驅逐을 일본에 의뢰하도록 협박하였다. 이에 대해 오오토리 공사는 6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기한 내에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보병 1개대대를 경성에 투입하여 조선정부를 위협하고, 이것으로도 안 되면 여단을 진격시켜 왕궁을 포위하고 대원군을 추대하여 정부의 수령으로 삼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6월 19일 오오토리 공사와 여단장의 협의에 의해 1개 대대를 경성에 진격시켜 위협하는 과정은 생략

⁴⁸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3642쪽 참조

⁴⁹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177쪽

⁵⁰ 參謀本部, 日清戰爭 第5篇 第11章 (第三草按,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參謀本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爭 (第2冊 決定草案,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2쪽

⁵¹ 6월 9일 북경에서 진행된 영국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6월 10일 대본영에서는 동경에서 조선으로 출발하던 福島 중좌편에 혼성여단장에게 “獨斷從事”의 內訓을 전했고, 내훈은 6월 17일 여단장에게 전달되었다(日清戰爭 第5篇 第11章 (第三草按); 日清戰爭 第6篇 第16章 (第三草按); 參謀本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爭 (第2冊 決定草案,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14쪽).

⁵² 日清戰爭 第5篇 第11章 (第三草按),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하기로 하고 곧장 여단을 보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치밀한 작전계획을 준비한 일본군은 6월 20일 밤 12시 경의간 및 경인간 전선을 절단하였다. 경북궁 점령 소식이 청국에 일찍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⁵³

경북궁 강점 작전은 6월 21일 새벽 4시 20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 군대는 강력히 저항하였으며, 조선 군대의 저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⁵⁴ 경북궁 점령은 국왕 고종을 사실상 포로로 삼고, 민씨척족과 대립 관계에 있던 대원군을 내세워 조선정부를 일본에 종속시키고 청국 군대를 조선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여 청국과의 개전 명분을 확보하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킴으로써 일본군이 청나라와 싸우는 동안 서울의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군수품 수송과 징발 등을 모두 조선 정부의 명령으로 시행하는 편의를 얻는다는 목적 아래 계획된 것이었다.⁵⁵ 이와 같이 일본은 경북궁을 점령하여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친일내각을 수립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어 6월 23일에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⁵⁶ 풍도 앞 바다의 청국함대에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청일전쟁은 예상을 깨고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전으로 이어졌다. 6월 27일의 성환전투에 패배한 데 이어 대규모의 육군을 평양으로 집결시킨 청군은 8월 16일 벌어진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도 크게 패배하였고, 일본군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의 요동반도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향후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3.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와 반일투쟁

1) 제2차 봉기 이전의 반일 투쟁

농민군이 1894년 9월에 들어 다시 일어난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물리치고, 輔國安民하려는 데 있었다.⁵⁷ 6월 이후에는 일본의 경북궁 강점과 청일

⁵³ 參謀本部, 日清戰爭 第5篇 第11章 (第三草按),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⁵⁴ 일본군의 경북궁 강제 점령에 대한 자세한 전말은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북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0 참조.

⁵⁵ 위의 책, 65쪽

⁵⁶ 일본은 7월 1일에야 선전포고를 하였다(參謀本部, 日清戰爭 第1篇 第3章 (第三草按),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⁵⁷ 全珠準供草, 318~319 및 340, 362

전쟁 개전, 내정간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일본의 침략의도가 점차 노골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 특히 全琫準의 관심은 폐정개혁으로부터 반외세문제, 곧 ‘斥倭’ 쪽으로 급격히 선회하였다.⁵⁸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여 국가가 멸망한다면, 폐정개혁은 고사하고 生民이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⁵⁹

이미 일본군에 의해 경북궁 강점과 청일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라도 일대에서도 반일투쟁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⁶⁰ 경북궁강점 직후인 6월 23일 경부터 일주일 안에 고부, 부안, 무장, 김제 등지에서 농민군이 다시 봉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의 巨魁들은 6월 8, 9일경부터 모의하여 일본이 大兵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므로 나라를 생각하는 자라면 모두 무기를 들고 일어나 막아야 한다며 사방의 士夫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6월 29일 장성에서는 “倭兵이 장차 이를 것이므로 일이 매우 급박하다”면서 500-600명의 농민군이 관아에 쳐들어와 무기를 탈취하여 갔다. 6월 22, 23일 무렵부터는 군산과 전라도에 인접한 강경지역에서도 농민군들이 청국병과 합세하여 일본군과 싸운다고 하며 총, 말 등 전쟁에 사용할 물품들을 민가에서 거두어 들였다. 7월 9일에는 전라도 부안의 농민군이 충청도 서천군으로 들어와 총과 화약, 馬匹 등을 빼앗아 갔다. 8월 25일에는 전봉준보다 오히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金開南이 남원에서 대규모 대회를 열고 기포를 결의하였다. 8월 19일 경부터 농민군이 남원으로 모여들었으며, 9월 1일에는 김개남과 기맥이 통하던 금구출신의 대접주 金仁培가 광양·순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상도 하동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재기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충청도에서도 시작되었다. 5월에서 6월에 걸쳐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충청도 지역 농민군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산만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무렵부터였다. 이때 농민군들이 내건 구호에는 ‘反倭’ 요소가 강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충청도 황산 지방에서는 6월 22-23일 무렵부터 농민군들의 반외 움직임이 가시화하였다. 이들을 지휘하는 곳은 공주이며, 이들의 목적은 청국인과 단결해서 경성을 공격해 들어가 일본인에게 당하지

⁵⁸ 裴亢燮, 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활동양상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53, 1997 참조.

⁵⁹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총서 22, 36쪽

⁶⁰ 이하 제2차 봉기 이전 전국각지의 반일투쟁에 대해서는 배항섭, 1894年 東學農民軍의 反日 抗爭과 ‘民族的 大聯合’ 推進 □ 軍史 35, 1997에서 정리 한 것임

않겠다는 것이었다. 7월 2일에는 보은 思角面 高升里 川邊에 농민군 수백명이 김 개쇠金介錫의 생일을 빙자해 모여 倡義를 주장했다. 보은군수 鄭寅亮 일행이 타 일러 해산시키려고 찾아가자 이들은 창의를 주장하며, 효유하러 간 군수에게 都約長이 되어 자신들과 함께 반일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경지역에서도 7월 2, 3일경부터 농민군들이 물려들기 시작하여 총, 말 등 전쟁에 사용할 물품들을 민가에서 거두어 들였다. 이들은 청국병과 일치 협력하여 일본병을 적대하고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보이는대로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 7월 3일부터 이인의 반송에도 농민군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접주 金弼洙는 “지금 외국이 來侵하여 종사가 매우 위급하니 병대를 일으켜 한번 토벌하여 환난을 평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군량과 마필 등을 거두어 들였다. 7월 12일에는 道人이라 칭하는 자들이 ‘輔國安民’과 ‘斥化舉義’를 주장하며 공주 銅川店에 둔취하고 있었다.

한편 경상도 일대에서도 일본군 전선가설대와 병참부 도로수선대 등이 파견되자 7월 초순부터 전선과괴 등 조선인들의 반일투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인부들과 우마를 징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정찰 나온 일본군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8월 23일에는 안동에서 서상철이 반일의병을 봉기하였고,⁶¹ 8월 24일 무렵에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여 서울로 침입한다는 풍설이 나돌고, 8월 24일 함창 태봉의 농민군들이 산양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였으며,⁶² 8월 25일, 26일에는 용궁 등에서 일본군이 공격을 당하고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⁶³ 이에 앞서 7월 28일에는 함창의 농민군이 관리를 포박하고 조선인을 無賃으로 일본군을 위해 일하도록 한 책임을 추국하면서 사람들에게 일본군에게 고용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다음날 태봉 병참사령관은 일단의 도로수선대를 인솔하고 함창으로 출동하였으나, 농민군을 이미 떠나간 다음이었다. 이 사건은 일본군이 농민군 탄압을 위해 출동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특히 8월 23일 안동 의병 봉기를 계기로 부산병참감에서는 사실상 농민군 탄압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농민군 진압이 시작되기 전에 농민군 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⁶⁴

⁶¹ 祥起, 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463쪽;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淸日戰爭과 朝鮮, 201~208쪽

⁶² 갑오척사록, 총서 25, 23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6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75쪽

⁶³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33~335, 272~279쪽

⁶⁴ 강효숙, 앞의 글, 22~23쪽

한편 8월 16일 벌어진 평양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시작하였으며,⁶⁵ 농민군의 제2차 봉기가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9월 10일 이전부터 농민군 진압에 일본군을 직접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일본군의 조선 출병 직후부터 “일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본인에 고용되는 자는 훗날 酷刑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돌았으며, 이에 따라 6월 1일에는 일본군에 고용되었던 조선인들이 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⁶⁶ 또 6월 3일 경성을 출발하여 6월 11일 평양에 도착하여 그곳의 청국군과 조선인들의 동향을 정찰한 일본군 보병 중위 町口雄槌에 따르면 평안도 일대에서도 일본군에 저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화에서 안전하게 숙영할 수 없어서 황주로 나와서 숙영해야 했다. 7월 5일에는 “目下 황해 평안 양도는 모두 일본인을 敵視하여 도처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7월 9일에는 연로의 전선이 점차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7월 중순에는 황주에서 일본 기마병 3명이 조선 군 병사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기도 했다.⁶⁷

이에 따라 9월 하순이 되면 義兵이라 칭하며 국왕의 명에 항거하는 농민군의 봉기가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 황해도, 나아가 평안도에까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2차 봉기와 반일투쟁의 전개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이러한 반일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전봉준은 드디어 반일투쟁을 위한 기포를 결심하고 9월 10일경 삼례에 大都所를 설치하고 기병준비에 착수하였다. 전봉준은 각지의 官衙에도 재기병을 알리는 통문을 보내 군수품 조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⁶⁸ 전봉준의 재기포 결정이 북접과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⁶⁹ 전봉준은 北接(東學教壇)과의 연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접에 함께 기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9월에 북접이 관청과 일본군 병참소에 북접과 남접을 구별하기 위해 보낸 글 속에 전봉준과 서장옥이 “북접을 끼고

⁶⁵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232' 233쪽

⁶⁶ 日清戰爭 第5篇 第11章 (第三草按),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 參謀本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爭 (第2冊 決定草案,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4쪽

⁶⁷ 日清戰爭 第6篇 第22章 (第三草按),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⁶⁸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 대해서는 배항섭 반일투쟁의 전개 , 한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1999 참조.

⁶⁹ 全球準供草 , 343쪽

때를 틈타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북접은 스승의 훈계를 각별히 따라 굳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 구절이 들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⁷⁰ 드디어 9월 18일 崔時亨은 청산에 각 포의 접주들을 청산에 불러 모으고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여”⁷¹ “先師의 宿冤을 快伸하고 宗國의 急難에 同赴할” 것을 지시하였다.⁷² 함께 기포하자는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무렵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군들이 본격적인 기포를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군이 농민군 진압에 나서려는 계획은 8월 29일 대원군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9월 9일 오오토리 공사는 무쓰 외무대신에게 농민군이 서울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서울을 수비할 2개 대대를 요청하였다. 오오토리는 9월 14일에 “조선정부가 동학당 토벌을 위해 일본군의 급파를 요청”하였다고 무쓰에게 전문을 보냈으나, 이는 조선정부의 공식적 요청이 아니라 개화파 내각의 구두 요청에 불과하였다. 조선정부가 일본측의 제의를 받아 동학농민군 진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9월 20일이었다. 그러나 그 보다 일주일이나 앞선 9월 13일 일본군 부산 수비대장은 병참총감으로부터 “전라도 동학당 攻破” 명령을 받았다. 9월 24일 인천에 있던 일본군 병참감은 병참총감에게 오로지 농민군 “섬멸”을 위한 수비병 2개 중대의 증파를 요구하였고, 9월 29에는 병참총감으로부터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嚴烈함을 요구한다. 향후 모조리 섬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⁷³

그러나 이보다 앞선 9월 17일 농민군 진압을 위해 일본군을 남하시키기로 결정하였고, 19일에는 2개소대를 남하시켰다. 1개소대는 原田 소위가 이끌고 용인, 죽산을 거쳐 충주 지방으로, 1개소대는 鈴木 特務曹長이 이끌고 수원, 진위, 천안을 거쳐 공주로 가도록 하고, 후자는 다시 두 개의 대로 나누어 하나는 아산, 평택, 홍주로 향하게 할 예정이었다.⁷⁴ 농민군 “섬멸”을 위해 10월 2일 일본에서 출발한 일본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본부 및 제1, 2중대는 10월 9일, 제3중대는 13일 인천에 도착하였다.⁷⁵ 이들은 14일 용산에 집결하였고, 10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농민군 진압을 위해 남하하였다.⁷⁶ 10월 19일에는 용산수비대 1개중대가

⁷⁰ 侍天教歷史 , 東學思想資料集 , 625쪽

⁷¹ 天道教創建史 , 東學思想資料集 貳, 155쪽

⁷² 天道教會史草稿 , 461쪽

⁷³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217-219쪽 ; 강효숙, 앞의 글, 24-25쪽

⁷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84-289, 355-35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64쪽

⁷⁵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9, 369-73쪽

⁷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9 ; 大阪朝日新聞 , 明治 28年 2月 13日, 157쪽

뒤따라 출발하여 동로분진대와 합류하였다.⁷⁷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미나미가 인솔한 제19대대가 인천에 도착한 10월 9일에 조선의 외무대신 金允植에게 서한을 보내 앞으로 농민군 진압에 임하는 조선군과 각 지방관에게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따르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⁷⁸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가 남하하기에 앞서 10월 13일 인천병참사령관 육군포병 중좌 이토오(伊藤祐義)는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농민군 진압계획을 보고하였다.⁷⁹ 핵심 내용은 농민군을 서남방 전라도 해안 쪽으로 몰아넣은 다음 합세하여 “초멸”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서, 중, 동 세 갈래로 나누어 남하하되 동로분진대에 1개중대를 증원하고 중로, 서로분진대 보다 빨리 남하하도록 하여 강원도 경상도의 농민군을 전라도 쪽으로 내몰도록 한 것이다.⁸⁰

농민군과 일본군 간의 대회전은 다름 아닌 공주 우금치 전투였다. 삼례에는 4천여명의 농민군이 모였으며, 전봉준은 제1차 봉기에 이어 또 다시 제2차봉기, 곧 반일항쟁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농민군을 이끌었다. 전라 각지 邑鎭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력을 강화한 농민군은 이미 일본군이 농민군 무력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인 10월 12일경 북상을 시작하여 10월 12일 논산에 도착하였다.⁸¹ 여기에서 동학교단 측의 손병희가 이끌고 온 농민군과 합세한 전봉준은 공주 공격을 앞둔 10월 16일 “兩湖倡義領袖”의 자격으로 골육상쟁을 피하고 항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관군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냈다.⁸² 이어 은진, 노성 일대에서 군량미를 확보하여 공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천으로 미리 옮겨둔⁸³ 전봉준은 10월 23일 밤 농민군을 진격시켜온 공주에서 남쪽으로 30리 지점에 있는 경천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북접에서 온 옥천포 농민군은 공주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大橋에 진을 치고 있었다. 남북접이 연합한 농민군은 남쪽과 동쪽에서 공주를 협공하려는 것이었다.⁸⁴ 이때부터 약 20여일에 걸쳐 농민군과 일본군 및 관군 사이에는 공주감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며,

⁷⁷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00~301쪽

⁷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0쪽

⁷⁹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3~156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67~68쪽

⁸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01~302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65~66쪽

⁸¹ 東學亂記錄 下, 382쪽

⁸² 東學亂記錄 下, 383~384쪽

⁸³ 東學亂記錄 上, 79쪽, 222쪽, 406쪽

⁸⁴ 東學亂記錄 上, 419쪽, 426쪽 ; 東學亂日記 下, 10쪽

이 전투는 농민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충청감사 박제순은 전봉준이 논산에서 글을 보내는 등 공주를 압박해오자 순무영과 일본군 측에 급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군과 일본군은 공주로 속속 이동하였다. 농민군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의 규모는 약 1,9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⁸⁵ 공주성을 둘러싼 농민군과 일본군 간의 최초의 전투는 10월 23일 이인에서 벌어졌다. 경천에 주둔한 전봉준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북접계 농민군은 이인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효포로 향하였다. 이인역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은 10월 23일 鈴木이 인솔하는 일본군 100명, 성하영의 경리청 1개소대 병력, 구완회가 이끄는 감영병력 4개 분대와 전투를 벌였다.⁸⁶ 24일에는 효포 일대에서 森尾 대위가 인솔하는 일본군 100여 명 및 관군들과 공방을 벌였다.

농민혁명 최대의 전투인 우금치 전투는 11월 8일 오후 3시쯤 시작되었다. 농민군은 11월 9일 오후 8시까지 일본군 및 관군과 40-50여회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많은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으며, 11월 11일, 12일경에는 능치 등 공주 부근 산봉우리에 남아있던 농민군마저 일본군과 관군에 쫓겨 계룡산 등지로 후퇴함으로써 20여 일에 걸친 공주공방전은 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⁸⁷

이후 일본군에 의해 무자비한 농민군 살육이 진행되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근대 일본군대가 저지른 아시아 민중대학살(제노사이드)의 최초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⁸⁸

맺음말

1894년 3월에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고 조선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자, 이미 출병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 일본은 조선이 청나라에 공식적으로 원병을 요청하기 하루 전에 조선에 대한 출병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5월초에서 중순에 걸쳐

⁸⁵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 :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東京, 1998), 305쪽

⁸⁶ 東學亂記錄 上, 439쪽 ; □公山剿匪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420쪽

⁸⁷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9~210, 246~248 ; 東學亂記錄 上, 228~238, 426, 440~444 ; 下, 10~22, 28~32쪽 ; □公山剿匪記□ 총서 2

⁸⁸ 井上勝生,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 2002, 31쪽 ; 趙景達, 앞의 책, 317쪽 참조.

5,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 조선에 출병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데서 나아가 경북공을 강점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반외세’, 특히 反倭문제는 전봉준의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늦어도 1893년초부터 광범위한 계층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던 전봉준의 연합구상도 더욱 강화되어 갔다. 전봉준은 전라감사 金鶴鎭이 7월 6일 ‘共守全州 同赴國難’ 하자고 제의하자 고심 끝에 전주로 가서 전라감사 김학진과 ‘官民相和’를 맺고 함께 협력하여 국난을 극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士族이나 지주층까지도 포괄하는 ‘반외세’를 위한 ‘민족적 대연합’을 통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농민군의 대대적인 반일항쟁은 9월 10일경 시작되었지만, 이미 8월말부터 일본군은 농민군 진압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농민군 진압만을 위한 별도로 병력이 출병하여 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살륙이 자행되었다. 반일을 주창하며 일어난 농민군은 공주까지 북상하였으나, 11월 8일부터 시작된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패배하였다. 농민군은 노성으로 물러나 진영을 수습하는 한편, 11월 12일 京軍과 營兵, 吏校 및 市民에게 알리는 글을 순한글로 고시문을 내걸어 斥倭와 斥化를 위해 동심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통상이후(通商以後) 갑신십월의 스흉(四凶)이 협적(俠敵)하야 군부(君父)의 위티(危殆)하미 道석(朝夕)의 잇더니 종사(宗社)의 흥복(鴻福)으로 간당(奸黨)을 소멸(消滅)하고 금년늑월의 기화간당(開化奸黨)이 왜국(倭國)을 처결(締結)하여 승야입경(乘夜入京)하야 군부(君父)를 꺾씩(逼迫)하고 국권(國權)을 천즈(擅恣)하며 우황 방빅수령(方伯守旣)이 다 기화중 쇼속으로 인민을 무홀(撫恤)하지 안이코 살륙(殺戮)을 죠하하며 싱녕(生靈)을 도탄(塗炭)하미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적을 소멸하고 기화를 제어하며 道정(朝廷)을 청평(淸平)하고 스직(社稷)을 안보홀식.⁸⁹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는 항일연합전선의 구축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10월 16일 전봉준이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글이나⁹⁰ 위의 고시문에서 강조하는 관료 및 경군·영병에 대한 합세촉구는 제1차 봉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주장이다.

⁸⁹ 東學亂記錄 下, 379~380쪽

⁹⁰ 東學亂記錄 下, 383~384쪽

그러나 이 시기 연합전선의 성격과 대상은 제1차 농민전쟁 시기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동학 농민군의 궁극적 목표는 ‘輔國安民’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봉기 때는 이 가운데 ‘安民’ 쪽을 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반봉건” 개혁을 위한 ‘계급중심의 연합’이었다면, 제2차 봉기에서는 ‘輔國’을 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斥倭斥化 투쟁을 위한 ‘반외세 연합’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제1차 봉기에서는 기본역량을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 받는 民衆과 方伯守丞 아래서 굴욕을 받는 小吏”에서 구하였다.⁹¹ 이러한 맥락에서 ‘반봉건’ 개혁, 특히 민씨정권의 축출이라는 면에서 농민군과 개화파 간의 연합가능성은 열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개화파세력이 일본과 함께 가장 주요한 타도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양반·보수유생층은 제1차 봉기에서는 중요한 공격대상이었지만, 斥倭斥化를 1차적 과제로 한 제2차 봉기에서는 보수유생층이 중요한 연합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⁹²

전봉준도 박제순에게 보낸 글에서 ‘日寇’의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국왕이 욕을 당하는 일, 조정대신(개화파-필자)들이 東夷와 連腸하여 국왕을 헐박하고 백성들의 원한을 산 일 등을 임진왜란 당시 국왕이 욕을 당한 치욕과 통분 등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 전봉준의 글은 물론 ‘민족적 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전제된 것이지만, 일본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당하여 전봉준의 의식 속에 온존되어 있던 근왕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또 11월 13일의 고시문에서는 척왜척화를 위한 연합전선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반일의식의 강렬함이 왜와 체결한 개화간당에 대한 소멸, 나아가 개화 자체에 대한 제어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침략행위, 나아가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과 살륙행위는 아래로부터 형성되어간 “근대적 민족주의”의 내용을 보수화하거나 국가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⁹¹ 東學史 , 東學思想資料集 貳, 467~468쪽

⁹² 이에 대해서는 배항섭,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일항쟁과 ‘민족적 대연합’ 추진 , 軍史 35, 1997참조.

3.1운동 이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전환과 대중적 확산

홍동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II. 1894년 이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형성과 변화

III. 3.1운동 이후 '민중운동'으로서 동학농민전쟁 인식

IV. 동학농민전쟁의 대중적 결합과 인식의 확산

V. 맺음말

I.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전쟁은 그동안 조선 역사의 내재적 발전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아 왔다. 그 결과 “조선왕조 봉건사회 해체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으며, “민족해방의 주체세력으로서의 민중의 민족적 결집의 효시”로서 평가되었다.¹ 특히, 1980년대 등장한 민중사학은 변혁주체로서 민중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동학농민전쟁을 설명하고자 했다. 즉, 조선후기 농민항쟁의 경험 속에서 민중의식(반봉건)이 성장했으며, 개항 이후 심화된 민족모순을 타개하기 위한(반제국) 계급연합적 성격의 변혁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² 또한 이들 변혁세

¹ 정창렬,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² 이윤갑, 『19세기 후반 경상도 성주 지방의 농민운동』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사학논총, 1988 ; 안병욱,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 1894년 농민전쟁연구 -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3, 역사비평사, 1993.

력은 1892년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남접세력으로 결집되어 1894년 농민전쟁을 주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³

따라서 집강소의 운영과 강령, 그리고 동학농민군에 의해 제시된 폐정개혁안은 민중사학이 전망하고 있던 ‘정당한’ 근대화 방향인 농민적 코스의 근대像을 밝히는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⁴ 또한 2차 봉기 당시 ‘斥倭倡義’를 기치로 결집된 ‘민족(계급)적 대연합’은 80년대 현실사회의 모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 받았다.⁵ 더 나아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좌절된 이후에도 영학당과 활빈당의 반외세 운동과 항일 의병활동으로 이어져 (남접)농민군의 반봉건·반제국주의의 변혁적 지향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다.⁶ 이로써 조선후기 농민항쟁을 통해 성장한 민중은 동학의 남접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1894년 농민전쟁을 주도했으며, 농민전쟁의 반봉건·반제국주의 변혁운동은 이후 영학당 및 활빈당과 항일의병 등의 反외세 변혁운동으로 계승되며, 이러한 흐름이 1919년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근대민족해방운동사의 선구’로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운동사적 narrative가 완성될 수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의 민중사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민중의 자율성에 입각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과 계급에**

³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3, 역사비평사, 1993 ;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4, 역사비평사, 1995 ;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4, 역사비평사, 1995.

⁴ 농민적 코스의 근대상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은 집강소 폐정개혁안의 ‘土地分作’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배항섭은 조선시대 왕토사상과 연계시켜 ‘土地分作’이 반드시 근대적인 것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조선시대 이질적인 토지의 사적소유에 대한 관습과 이를 부정하는 왕토사상이 민중의 의식형성에 모두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농민전쟁기 지주제의 전면 폐지 대신 왕토사상에 기댄 ‘土地分作’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토지문제에 대한 의식은 반드시 反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이지만은 아니었으며, “‘근대’로도 ‘반근대’로도 수렴될 수 없는 매우 독자적인 영역, 곧 ‘근대’와 ‘반근대’ 너머에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배항섭, □근대 이행기의 민중의식-‘근대’와 ‘반근대’ 너머□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 역사비평사, 2013, 169쪽).

⁵ 배항섭,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일항쟁과 ‘민족적 대연합’ 추진□ 군사 35, 1997.

⁶ 이영호, □농민전쟁 이후 농민운동조직의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4, 역사비평사, 1995.

의해 획일화되거나, 근대 발전론적 시각에 의한 단선적 이해를 비판하고 ‘민중의 논리’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 이들 연구는 근대발전론적인 시각을 비판하고 ‘一君萬民’⁷이나 ‘仁政’ 투쟁⁸이라는 조선시대 유교담론을 통해 동학농민전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연속성 속에서 동학농민전쟁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투쟁하는 민중 뿐 아니라 일상 속의 민중으로까지 그 인식의 폭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대민족해방운동사의 선구’라는 운동사적 narrative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⁹ 이들 연구는 대체로 동학농민전쟁 당시부터 현재

⁷ 조경달은 조선후기 민중의 일상 속에 확산되어 있던 士의식과 동학의 결합으로 등장한 남접의 ‘이 단동학’에 주목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은 이들이 국왕환상(士의식)에 기대어 평균주의와 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반근대적인 ‘一君萬民’의 유교적 유토피아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조경달 지음/박맹수 옮김,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2008 ; 조경달 지음/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⁸ 배항섭은 민중이 지배이데올로기인 유교적 정치문화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이를 내면화 또는 전유함으로써 오히려 저항을 정당화하는 논리(仁政 투쟁)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전근대와 근대를 서로 다른 ‘시간들’의 겹침과 가역성’으로 열어둠으로써 전근대와 근대의 비대칭적 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배항섭, □19세기 지배질서의 변화와 정치문화의 변용 : 인정 원망의 향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9, 2010).

⁹ 운동사적 narrative와 관련해서 이영호는 동학농민전쟁 당시 남·북접의 노선차이에 주목하여 남접은 농민운동으로, 북접은 동학운동으로 계승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대와 갈등을 반복하다가 3.1운동에서 다시 ‘극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영학당과 의병활동 등 반외세 활동에 참여하는 등 남접 잔여세력의 동향을 통해 동학농민전쟁의 정신이 이후 반외세 민족운동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계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이영호, □갑오 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역사와현실 3, 1990 ; 이영호, □대한제국시기 영학당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1991 ; 이영호, □농민전쟁 이후 농민운동조직의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 이영호, □농민전쟁의 계승과 그 계보□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2014). 이밖에 동학농민전쟁 참여자 가운데 북접 계통의 인물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전쟁 이후 천도교 활동과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전쟁에서 3.1운동으로 계승되는 과정을 계통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도 있다(성주현, □박인호계의 동학혁명과 그 이후 동향□ 동학학보 17, 동학학회, 2009 ;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 문명연지 6-1, 한국문명학회, 2005 ; 엄찬호,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강원사학

까지 각각 시기별로 동학농민전쟁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통해 각 시대마다 동학농민전쟁이 갖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었다.¹⁰ 하지만 최근에는 동학농민전쟁 연구의 근대 발전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그러한 동학농민전쟁像이 형성되는 과정(기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¹¹ 이를 통해 동학농민전쟁-항일의병-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적 인식의 내용과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계보적 인식의 형성 계기로 3.1운동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3.1운동을 계기로 동학농민전쟁 인식이 전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전환된 인식의 특징, 그리고 3.1운동직후 형성된 인식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본 글에서는 첫째, 3.1운동 전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3.1운동 직후 형성된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주체와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3.1운동 직후 형성된 동학농민전쟁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이후 무엇을 매개로 대중들과 결합될 수 있었는지를 소설, 희곡, 전기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설명을 통해 3.1운동 이후 전개된 민족운동 과정에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갖는 의미와 위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동학농민전쟁의 핵심 의제이며 문명론적 인식에서 배제논리로 작용되었던 ‘斥倭倡義’가 항일 민족운동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5, 2011).

¹⁰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 이진영,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 2002.

¹¹ 우선 배항섭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민중’을 발견한 민족주의와 사회의 계열이 민중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농민전쟁상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과정은 결국 근대(엘리트)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서사의 틀 속으로 민중의 경험과 의식을 꾸겨 넣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민중의 주체성이 억압되고 배제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배항섭, 『1920-30년대 새로운 ‘동학농민전쟁상’의 형성』 사림 36, 2010). 한편, 홍동현은 좀더 구체적으로 동학농민전쟁 당시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개화파 정권과 일본의 진압논리로서 ‘문명론’이 이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기본 틀(배제와 포섭)로서 작동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민족주의운동에서의 민중의 역할 및 위치와 연계해서 살펴보았다(홍동현, 『1894년 일본 언론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 時事新報 와 國民新聞 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4, 2010 ;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문명론적 인식의 형성과 성격』 역사문제연구 26, 2011 ; 『1900~1910년대 동학교단 세력의 ‘동학란’에 대한 인식과 교단사 편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6, 2013 ; 『한말·일제시기 문명론과 ‘東學亂’ 인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8).

3.1운동이후 형성된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한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1894년 이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형성과 변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진압된 이후 조선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근대 문명이라는 美名下에 자행된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근대문명은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문명개화론자들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조선을 계몽하고자 했으며, 非서구적인 것을 모두 야만에 배치함으로써 문명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¹² 그런 가운데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동학란’은 주로 조선의 非문명적 경험으로 호명되었으며, 이를 주도한 동학당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배척되고 경계되어야 할 대상으로 타자화 되었다.¹³ 특히, 이들은 ‘斥倭倡義’를 거론하며 동학농민전쟁을 조선의 근대 문명화를 반대하는 ‘배외주의 운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당시 전개되고 있던 보수유생 중심의 항일의병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시켜 ‘척왜창의’를 反문명적인 담론으로 격하시키고자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1905년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民의 자발적인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부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소환했다. 김윤식과 유길준 등 개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講舊會는 갑신정변이후 나라를 위해 순절한 사람들을 추도하기 위한 ‘愛國死士追悼會’ 개최를 준비하였다. 애국사사에 선정된 인물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등 개화정책을 추진하다가 희생된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3명의 지도자를 포함시켰다. 소위 동학교단 내 남접 지도자 중 대표적인 인물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동학농민전쟁을 바라보는 문명개화 세력의 선별적 인식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이들은 동학교단 주도의 배외주의 운동으로부터 反閔族 정치 개혁운동으로서 1차 봉기를 選別·분리하여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한 ‘愛國’에 동학란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자신들이 추구

¹² 은정태, □청일전쟁 전후 조선의 대청정책과 조청관계의 변화□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 길진숙, □독립신문·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 소명, 2004, 59~60쪽.

¹³ 홍동현, 앞의 논문, 2011 ; 2013 참조.

했던 문명화를 위한 일련의 조선개혁운동의 일부로 위치지울 수 있었다.¹⁴

한편 동학교단 세력은 문명개화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 계몽운동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학란’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환될 수밖에 없었다. 먼저 문명개화로 전환한 손병희는 천도교로의 改新을 통해 동학적 전통과의 단절을 표방하였으며, ‘동학란’을 의도적으로 망각시킴으로서 ‘배외주의’라는 이미지를 탈각시키고자 했다. 즉, 천도교 교단사를 통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은 전봉준의 사사로운 원한에서 비롯된 ‘全琫準之亂’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적 기억으로부터 거세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천도교에서 분화된 시천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학란’을 적극적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남접세력을 동학교단 내 일부로 끌어들이고, 남접 주도의 ‘동학란’ 또한 부패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개혁운동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집단인 일진회와의 공존과 함께 시정개선을 통해 조선의 문명화를 이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친일)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처럼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이후 근대문명 담론과 결합되어 호출되었으며, 호명의 주체는 주로 1900년대 계몽운동을 주도한 문명개화 세력이거나 또는 이에 동참하고자 했던 개화된 동학교단 세력이었다. 이들에 의해 호명된 동학농민전쟁은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배척되어야 할 ‘배외주의 운동’이거나, 또는 자신들이 추진해왔던 ‘조선 개혁운동’의 일부로서 포섭하고자 하였다.

한편 1910년 國亡이 현실화되고 국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동학농민전쟁 인식에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1900년대 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중 주체의 항일 무장항쟁론이 제기되면서 민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혁명적 血光’으로 동학농민전쟁을 평가하였다. 비록 실패요인으로 민중의 폭력성을 거론하는 등 민중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배외주의 운동’이라는 문명론적 인식이 약화되고 민중 주체의 ‘혁명’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동학농민전쟁의 인식변화는 천도교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희는 ‘민족’ 문제에 소홀한 손병희의 문명개화 노선을 비판하는 가운데 동학농민전쟁을 거론하였다. 1916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¹⁴ 강구회의 애국사사추도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광린, 『舊韓末 講舊會 選定의 ‘愛國死士’에 대하여

□ 진단학보 65, 1988 ; 홍동현, 박사학위논문, 2018, 50~65쪽, 참조.

그는 “갑오년 혁명 당시 산화한 영혼을 생각해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포함한 혁신안을 제시하였다.¹⁵ 즉, 동학농민전쟁을 항일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 그가 천도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천도교 내부에 ‘斥倭倡義’로서 동학농민전쟁을 인식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1920년대 초반 천도교내 혁신세력으로 결집하고 있었다.¹⁶

Ⅲ. 3.1운동 이후 ‘민중운동’으로서 동학농민전쟁 인식

1910년대 國亡 이후 민중에 대한 불신이 약화되는 가운데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인식 전환은 3.1운동 직후부터이다. 우선 3.1운동 직후 동학란을 적극적으로 소환한 것은 이돈화를 필두로 한 천도교청년회이다. 천도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위기관으로 결성된 천도교청년회는 ‘민중운동의 핵심기관’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지향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벽이라는 기관지를 창간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천도교의 후천개벽이 현실사회에서 발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으며, 동학농민전쟁은 개벽이 발현되었던 경험으로서 개벽 등의 기관지를 통해 소환되고 있었다.

우선 개벽에 동학농민전쟁이 처음 소개된 것은 5호(1920.11)에 게재된 이돈화의 「洪景來와 全瑋準」이라는 기사를 통해서이다.¹⁷ 이글에서 이돈화는 “近代朝鮮史로 一種의 活氣를 보게한 者는 北에 壬申西亂이 있고 南에 甲午史變이 잇 설을 뿐이었다”고 하여 자신이 두 사건에 주목한 이유가 ‘吾朝鮮人’으로서 ‘民族的 活氣’를 얻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時勢의 上에서 洪의 時代인 壬申은 全의 時代인 甲午에 不及함이 遠하니라”고 하여 전봉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이끈 동학농민전쟁을 ‘民衆의 對政治的 改革運動’이라고 하여 민중운동으로 규정하였다.¹⁸ 이어서 개벽은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

¹⁵ 최정간, 해월 최시형家の 사람들, 웅진, 1994, 168~169쪽.

¹⁶ 홍동현, 「일제시기 천도교 혁신세력의 ‘東道’주의와 종교·정치 활동」 영남학 68, 2019.

¹⁷ 白頭山人, 「洪景來와 全瑋準」 개벽 5호, 1920.11.

¹⁸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朴鍾烈이라는 자는 이돈화의 본 기사를 읽고 “白頭山人의 「洪景來와 全瑋準을 一讀하고 가장 激昂히 興奮하였습니다”고 하여 개벽사에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讀者 交情欄」 개벽 7, 1921.1).

던 황의돈의 ‘民衆의 吡號의 第一聲인 甲午의 革新運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¹⁹ 또한 그는 동학농민전쟁을 “全民衆의 自由的 權利, 平等的 幸福을 要求키 爲”한 민중적 혁신운동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교단내 강의는 젊은 학생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²⁰

이밖에도 개벽은 ‘民衆의 巨人-孫義菴先生의 一代記’²¹이나 문일평의 ‘甲子以後 六十年間の 朝鮮’²²이란 글 등을 통해 동학농민전쟁을 민중 주체의 정치 개혁운동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개벽을 통해 소개된 동학농민전쟁은 당대 젊은 세대들의 인식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천도교 청년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모스크바에 유학 중이던 白雲이라는 교인은 개벽 1926년 4월호에 게재된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一記者)와 「甲午東學과 階級意識」(李敦化)이라는 글을 읽고 천도교청년당 본부 내에 연구부를 두고 삼남지역에 현존하는 참여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과 해외 同德들을 동원하여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학란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²³

이처럼 3.1운동 이후 동학농민전쟁은 대체로 천도교청년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환되어,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운동’으로서 주목 받았다. 이는 3.1운동

¹⁹ 황의돈, 「民衆의 吡號의 第一聲인 甲午의 革新運動」 개벽 22호, 1922.4 ; 「民衆의 吡號의 第一聲인 甲午의 革新運動(續)」 개벽 23, 1922.5.

²⁰ 신인간 과 천도교회월보 에 동학란 관련 글을 게재하기도 했던 이학인은 동학란과 관련해서 황의돈과 장도빈, 김상기의 글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시절 보성전문 학교 재학 중 황의돈의 강의에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이학인, 「동양 최초의 민중운동 : 동학란의 가치」 천도교회월보 255, 1932.3). 또한 그가 저술한 중등조선역사 (1927)와 신편조선역사 (1929) 등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전쟁을 ‘東學黨의 革命亂’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당대 젊은 조선인들의 동학농민전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그가 집필한 중등조선역사는 6년 6개월 동안 9판이 발행되었으며, 전국의 주요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당대 사람들의 회고에 의하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종린,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지식 대중화-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2014, 264~269쪽).

²¹ 一記者, 「民衆의 巨人-孫義菴先生의 一代記」 개벽 24, 1922.6.

²² 문일평, 「甲子以後 六十年間の 朝鮮」 개벽 43, 1924.1.

²³ 白雲, 「東學黨運動史 研究部를 攄시다」 신인간 20, 1928.1.

당시 보여준 민주적 역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동학란’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매개로 민중과의 결합을 모색하고자 한 천도교청년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시기 소환된 민중운동으로서 동학농민전쟁 속에 등장하는 민중은 어디까지나 동학에 의해 자각(개조)된 민중이었다. 즉, 동학농민전쟁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동학에 의해 개조된 민중(東學黨)에 의해 “**全民衆의 自由的權利, 平等的 幸福을 要求키 爲하야**” 전개된 정치개혁운동이었다. 이로서 천도교청년회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기미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천도교의 ‘혁명적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조선운동의 영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²⁴

IV. 동학농민쟁의 대중적 결합과 인식의 확산

3.1운동 이후 개벽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농민전쟁像은 소설과 희곡, 그리고 연극 등과 같은 대중문화와 결합되어 대중 속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32년 동경의 榮進社라는 곳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李學仁이 천도교회월보 에 기고한 다음 글이 주목된다.²⁵

月前에 風便에 드른즉 京城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東學의 世上 이란 劇을 上演하였다는 것 등을 綜合해본다고 하면 머리에 맑은 意識을 가진 朝鮮民族의 대부분이 東學亂의 價値를 認定하는 모양이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 중반 이후 동학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3.1운동 이후 형성된 민중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전쟁 인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자는 ‘동학란의 가치’로써 ‘惡政을 改革’하기 위한 ‘革命運動’으로서 ‘四千餘年の 朝鮮歷史 中에 빛나고

²⁴ 결국 이로 인해 1932년 천도교와 사회주의 세력 간 사회운동의 ‘영도권’을 둘러싸고 사상논쟁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최시형의 미온적 태도를 거론하며 북적교단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면서 천도교의 역사로부터 동학농민전쟁을 분리시켰다.

²⁵ 이학인, □東洋最初の 民衆運動 東學亂의 價値□ 천도교회월보 255, 1932.3.

갑잇는 一大史實'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²⁶ 3.1운동 이후 自國史에 대한 자부심을 찾고자 했던 젊은 세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다.²⁷

동학농민전쟁을 단독 소재로 한 최초의 소설은 이학인의 「홍의장군」이며, 갑오년 당시의 구전설화를 작품화한 것으로 홍의를 입은 아기장수가 관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 홀연히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⁸ 또한 구봉산인의 「東天初月」은 1893년 보은집회부터 전봉준의 기포와 전주성 함락, 재차 봉기 당시 순병희의 참여 등 동학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²⁹ 이밖에도 많은 소설 속에서 동학농민전쟁을 소재로 다루고 있었으며, 연극공연을 위한 희곡의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²⁶ 이학인은 본 글의 기고 이유로, 어느 일본인 기자가 「臺灣蠻人暴動」 기사에 빗대 “朝鮮에서도 東學黨이란 蠻인들이 暴動을 니르킨 일이 잇지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학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집필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신인간 5(1932.5)에 「동학당의 봉기」라는 글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게재치 못하였다”는 「社告」만 알리고 있을 뿐 게재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 및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한편 이학인은 「홍의소년」(1927년)이라는 동학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최초의 소설을 집필하기도 했다(이학인, 「紅衣少年」 신인간 12, 1927.5).

²⁷ 이와 관련해서 3.1운동 직후 학지광 을 통해 일본 유학파였던 박승철과 고광규가 동학농민전쟁 인식을 두고 벌인 논쟁이 주목된다. 먼저 박승철은 청일전쟁의 導火線으로서 ‘동학농민전쟁’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서 조선의 정치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박승철, 「東洋史上의 東學黨」 學之光 20, 1920.7). 이에 대해 고광규는 “朴某의 (東洋史上의 東學黨)이란 강연을 듣고서 내의 얼굴이 붉었었다”라고 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歷史란 것은 누가 만들고 누가 읽는 것이며 자기의 短處만 말하고 長處는 말하지 못할 것인가(다만 偏狹의 愛國者의 過大追裝을 말함은 안이다) 또는 自己民族을 標準삼을 것인가 남의 嘲笑的 文字를 模倣할 것인가”라고 하여 박승철을 “歷史의 逆賊”이라고까지 언급하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즉, 그는 조선의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東學黨을 朝鮮革命黨이라 하여 세계사에 붓치고 십다”고 하여 자신의 동학농민전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一小民의 作群作黨”이라고 서술한 박승철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광규는 동학농민전쟁을 “文明的이라 自矜하는 佛國革命과 갖치 무수한 사람의 생명은 뺏지 안이하었다”고 하여 프랑스혁명에 견주기도 하였다.

²⁸ 이학인, 「紅衣少年」 신인간 12, 1927.5.

²⁹ 구봉산인, 「東天初月」 천도교회월보 283~287, 1936.2~6.

우선 유명 극작가 김우진의 마지막 작품인 「산돼지」³⁰는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다가 처형된 동학군(산돼지)의 아들이 체제에 순응하는 집돼지(원봉)로 양육되다가 부친의 숨은 내막을 알고 산돼지가 되어 뛰쳐나가야 한다는 번민을 다루고 있다.³¹ 이는 당시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기억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으로 「그날밤」(1927)과 「가보세」(1931)는 “양반놈들을 죽인다우. 최진사허구 사또님허구 모두 죽인대는데”라고 하여 관리의 폭정과 함께 정치개혁으로서 동학농민전쟁을 묘사하였다. 특히 당대 최고의 대중적 스타였던 임선규³²는 역사극 「동학당」을 부민관에서 초연하였으며, 전국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하였다. 작품 속에서 임선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富貴貧賤과 嫡庶奴主를 가리지 말고, 오로지 隆師親友하며 輔國安民과 布德濟家를 바라는 것이 東學의 道”라고³³ 하여 동학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평등사상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권리를 찾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보존하려면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³⁴ 하여 봉기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번 강화한 것이라든지, 그 후 각 고을에 집강소라는 것을 두어, 政事를 補助하라는 뜻”이라고³⁵ 하여 동학농민군에 의해 운영되었던 집강소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³⁰ 김우진은 □산돼지□를 집필하기 위해 동학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1926년 7월 9일 지인 抱石에게 보낸 편지에 ‘東學亂離記錄한 冊’과 “本年 四月 開關誌에 있던 모양인데 單券冊이 없으면 開關 四月號도 좋습니다. 거기 東學亂 前後記事가 실려 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개벽 68(1926.4)를 구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당시 개벽에 실린 동학란 관련 기사는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과 이돈화의 ‘甲午東學과 階級意識’이다.

³¹ 이에 대해 조동일은 □산돼지□에 대해 “동학농민운동 주역의 다음 세대가 일제의 술책으로 순화되고, 일상의 사소한 번민에 감금되고, 허황된 낭만주의에 감염되어 자아상실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문제 삼았다”고 평가하였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8, 205쪽).

³² 임선규는 천도교 청년회 기관지였던 개벽 을 애독했으며, 사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김옥란, □임선규 국민연극의 문제성□ 민족문화사학사연구 27, 2008, 298~299쪽).

³³ 임선규, 동학당 , 1941(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재발간), 25쪽.

³⁴ 임선규, 위의 책, 66쪽.

³⁵ 임선규, 위의 책, 24쪽.

한편 1930년대 들어서면서 전봉준을 소재로 한 위인전이 상당한 상업성을 지니면서 출판되고 있었다. 우선 장도빈은 1925년 저술한 朝鮮英雄傳 에서 朝鮮十代革命家 가운데 한 명으로 ‘東學黨首領-全瑋準’을 ‘兵을 擧하여 腐敗無道한 貴族政府를 打破하고 平民主義로 政府를 一新하여 國家生民을 救濟하라 한’ ‘先覺한者’로 소개했다.³⁶ 이어서 차상찬은 별건곤 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면서 역사적 사건이나 위인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묶어서 朝鮮四千年秘史 (북성당서점, 1934)³⁷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그는 동학농민전쟁을 ‘朝鮮歷史가 잇는 뒤로 第一 큰 民衆運動’이라 평가하였으며, 그 주인공인 전봉준을 “참으로 民衆의 自由와 社會的 平等을 위한” 희생자이며, 그의 희생은 “失敗가 아니라 영원한 未來의 成功이다”라고 하여 독자(민중)들로 하여금 ‘이와가티 싸울 것’을 독려했다.

전봉준 위인전은 대체로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중들에게 “指導者를 選擇하는 것과 選擇한 指導者에게 服從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³⁸ 위한 계몽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운동으로 민중을 결집시키고자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먼저 장도빈의 甲午東學亂과 全瑋準 이 발간되자 동아일보는 신간소개란에 ‘朝鮮사람으로 一讀할만한’ 책으로³⁹ 소개하고 있으며, 東學風塵 菘豆將軍 과 甲午東學亂 附 全瑋準實記 는 처음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발간되었다.⁴⁰ 특히 甲午東學亂 附 全瑋準實記 는 덕흥서림에서 1930년에 발간되어 20전에 판매되었는데, 3년 뒤인 1933년

³⁶ 장도빈, 朝鮮英雄傳 , 고려관, 1925, 76쪽.

³⁷ 비사 본문에는 그동안 본인이 잡지에 기고했던 동학농민전쟁 관련 글을 ‘甲午東學黨亂’ ‘附 東學亂雜記’ ‘東學黨首領 全瑋準’의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³⁸ □東西古今人物座談會□ 동광 29, 1931.12. 본 좌담회에는 김병로, 박찬희, 문일평, 유광렬, 이광수, 이용설, 차상찬이 참여하여 지도자와 지도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指導者없는 民衆은 흐터진 모래와 같지요”라고 하여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朝鮮사람은 社會生活을 해본 일이 없어서 指導者를 選擇하는 聰明과 服從하는 마음도 없는 줄로 압니다”라고 하여 현재 지도자 및 지도이념의 부재를 지적한 뒤 “朝鮮안에서 教育的 事業을 한다 하면 指導者를 選擇하는 것과 選擇한 指導者에게 服從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향후 민족문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³⁹ □신간소개□ 동아일보 , 1926.11.8.

⁴⁰ 이기대, □구할자본<녹두장군>의 서지사항과 서술양상에 대한 연구□ 동학학보 32, 2014.

동일한 작품이 경성서관에서 35전에 재발간되어 판매되었다.⁴¹ 즉, 판권이 덕흥서림에서 경성서관으로 넘어간 것인데, 그만큼 상품성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이후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는 대중들의 ‘待望論’과 결합되어 민중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학농민전쟁은 조선의 근대 문명화 과정에서 문명개화론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주도한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로 포섭되거나, 배외운동이라는 反문명적 경험으로서 소환되었다. 하지만 3.1운동을 경험한 직후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동학농민전쟁像이 형성될 수 있었다. 동학농민전쟁은 주로 민중적 역량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환되었으며, 민중 주도의 정치개혁운동으로서 평가되었다.

이처럼 인식전환의 계기로서 우선 첫째로 3.1운동 이후 민중에 대한 지식인들의 기대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 당시 거족적인 ‘독립만세’ 운동 과정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민중적 역량을 경험했으며,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협력자 또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3.1운동과 같은 민중들의 역사적 경험으로 동학농민전쟁을 주목하고 이를 호출하고자 했다.

둘째로 3.1운동 이후 천도교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지적할 수 있다. 천도교는 1918년 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개조의 시대사조에 편승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행위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시야 속에 포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공적기억에서 배제시켰던 동학농민전쟁을 교단사를 통해 복권시켰으며, 천도교청년회 기관지인 개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환해 민족세력 내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로 192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소설, 희곡, 연극 등 대중문화와의 결합을 들 수 있다. 특히 1920년대 중반이후 민족운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중을 이끌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는 ‘待望論’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봉준은 민중

⁴¹ ‘덕흥서림’본은 저작 및 발행자가 김동진으로 되어 있으며, ‘경성서관’본은 김재덕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동학풍진 녹두장군의 저작 및 발행자 노익환과 같이 출판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이기대, 위의 논문, 147~148쪽).

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상업성을 띤 전봉준위인전이 출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 스타였던 임선규는 연극 「동학당」을 공연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다.

결국 3.1운동 직후 동학농민전쟁은 천도교청년회에 의해서 민중운동으로서 재해석되었으며, 기관지인 잡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중문화와 결합되어 확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시기 형성된 동학농민전쟁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문명론적 인식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민중 주도의 정치개혁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학에 의해서 개조(계몽)된 민중이었으며, 전봉준이나 최시형과 같은 선각자의 지도에 의해 전개된 개혁운동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실사회에서 민중을 개조하고 이들을 이끌 영도권이 천도교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은 문명개화론자들이 동학농민전쟁 직후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로 포섭하고자 했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시야에서는 동학농민전쟁 당시 제기되었던 ‘斥倭倡義’는 여전히 벗어나 있었다. 오히려 ‘척왜’는 시대에 뒤쳐진 배외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러한 정치의식의 부재로 인해 동학농민전쟁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 이에 대해 오지영은 동학사를 통해 “色眼鏡을 쓰고 側面觀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⁴² 결국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동학농민전쟁을 매개로 민족운동 세력을 결집하고자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좌절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⁴³

⁴² 홍동현, □오지영의 동학사를 다시 읽다□ 내일을 여는 역사 73, 2018.

⁴³ 당시 좌우 민족주의 세력 모두 동학농민전쟁을 “혁명적 농민의 계급투쟁의 초기 운동”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척왜척양 구호를 ‘보수적 오류’로 평가했다. 또한 최동희 등 천도교혁신훈의 통일전선체인 ‘고려혁명당’이나 천도교 신파 중심의 조선농민사운동 등 천도교 세력의 통일전선운동은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전쟁에서 3.1운동으로 이어지는 혁명적 정통을 내세우며 좌우결집을 도모했으나 모두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홍동현, 박사학위논문, 2018, 167~170쪽).

조선근현대사의 민족해방투쟁속에서 3. 1 인민봉기의 기억

- 3. 1 인민봉기 100주년을 맞이하여 -

강성은
(조선대학교)

머리말

올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 1919년 3. 1 인민봉기로부터 100돐을 맞이하였다. 3. 1 운동은 전국 218부군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이에 200만명이상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간도를 비롯한 세계각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도 《독립만세》의 시위를 벌렸다.

3. 1 운동은 제1차세계대전후의최초의대규모적인반제국주의운동으로서 중국의 5. 4 운동 등 세계각지의 민족해방운동을 고무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정책을 종래의 《무단통치》부터 1920년대에 《문화정치》라는것을 표방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3. 1 운동은 일본의 쌀폭동이나 중국의 5. 4 운동과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운동으로서 리해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3. 1 운동의 특징은 민중운동으로서의 넓이의 크기에 있다. 쌀폭동이나 5. 4 운동에 비하여도 그 규모의 크기는 뛰어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일본의 포악한 탄압에 의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으나 거의 모두가 무명의 사람들이었다. 3. 1 운동은 조선근대사에서의 민족운동발전의 도달점을 보여주고 있다. 3. 1 운동의 이러한 특징은 현재 조국의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우선 조선현대사에서 3. 1 운동의 체험과 기억이 어떻게 계승되어왔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한다. 또한 3. 1 운동 100돐을 맞이하여 재일조선인의 입장으로부터 3. 1 운동의 기억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3. 1 운동의 체험이 가지는 의미

3. 1 운동의 체험은 그후의 독립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첫째로, 조선민중의 3. 1 체험은 그후의 독립운동의 원점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류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김구 《백범일지》, 리강훈 《우리항일독립운동사》, 김산 [본명 장지락] 《아리랑의 노래》, 김경천 《경천아일록》 등) 를 보아도 3. 1 운동의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나서는 계기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8살 때에 일어난 평양에서의 3. 1 운동에 만경대의 주민들과 함께 달려나가지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그 만세소리는 나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 앞거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였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발돋움을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시절은 벌써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3. 1 운동의 체험이 새로 혁명가로 나서는 결심을 다지시는 계기로 되었다.

김산은 조선에서 3. 1 운동에 조우하여 《수천명에 달하는 다른 학교의 생도나 거리의 사람들과 대오를 짜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나는 기쁨으로 심장이 터질듯하였고 누구나 기쁨에 넘쳐있었다》는 체험을 하였다. 이 체험이 《나의 정치의식을 각성하였고 대중행동의 힘이 나를 근저로부터 뒤흔들었다》고 회상하였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후 기병련대소위에 임관한 김경천은 3. 1 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을 경유하여 소련의 연해주에로 탈출하고 조선인빨찌산부대의 지휘자로 되고 소련적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웠다.

이러한 조선민중의 3. 1 운동 체험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원점으로 인식될만한 폭이 넓은 민중운동의 체험은 드물었다. 레를 들면 일본의 민중운동의 획기를 이루었다고 하는 쌀폭동의 참가자는 거의 하층민에게 국한되었고 중·상층민이나 인테리는 무관하였다.

둘째로, 조선의 독립운동이 3. 1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운동으로 이행해나간 것이다. 《나는 [김산-인용자] 세계적대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는 마음으로 지복천년 (至福千年) 이드디어왔다고 생각하였었다. 이삼주일 후에 전해온 베르사이유의

배반의 충격은 매우 컸고 나는 마치 나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말을 믿은 우리들 조선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감격가였던가. 미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희망을 걸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빠리강화회의와 워싱턴회의에서 그 희망이 끊어지고 윌슨의 《민족자결》이라는 것은 대국의 통치권을 가탁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쏘베트련방이나 사회주의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운동으로의 변화는 일조일석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전반이 이행의 과도기였다. 예를 들면 국외에서는 독립군에 의한 청산리 전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임정)》의 결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운동은 이전보다도 더욱 첨예화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전체적인 독립운동, 정치투쟁은 20년대 전반에는 아직 민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운동은 개별의 노농운동이 주로 경제투쟁의 형태로 역량을 축적하고 있었던 단계였다.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25년의 조선공산당 창건 이후였다.

민족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그들은 그 표면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쟁현장에서는 다분히 공통하는 과제를 걸고 있었다. 3. 1 운동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을 돌이켜 보면 민족주의 운동은 민중의 생활현실에 뿌리박은 제 요구에 응하려고 하는 속에서 단순한 부르조아 국가로서의 독립의 회복을 넘는 《새로운 사회》를 회구하게 되었다. 한편 공산주의 운동을 보면 일시기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원칙에 의한 현주국당의 가입방침》을 받아 재외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1935년의 제 7차 대회 방침에 의하여 다시 조선혁명고유의 과제 = 항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정면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을 비롯한 제 3세계의 식민지 여러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단순한 이룰 배반이 아니었다. 일방은 민족성에 얼마간 비중을 두고 타방은 계급성을 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다. 실태에 맞게 말한다 면 사회주의적인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이를 잘 보여 준다.

1920년대의 국내의 신간회, 중국동북지방의 유일당 형성의 시도나 3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동북지방의 재만한인조국광복회 (36년),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41년) 과 좌우합작, 연안의 조선독립동맹 (42년), 국내의 조선건국동맹 (44년) 은 모두가 통일전선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의 조류는 대립과 통합의 과정을 거듭하고 최종적으로 수렴해 나간 그들의 건국구상은 토지개혁과

진보적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량자가 널리 결집한 민족통일전선적인 체제 = 반제반봉건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이었다. 조선독립운동사는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확대가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2 . 3 . 운동의 기억

1) 해방전의 기억

3. 1 운동 이후 3. 1의 기억은 어떻게 계승되어왔던가. 언론매체를 보면 국내에서는 조선총독부의대변지인 《매일신보》에는 3. 1 운동에 관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으나 조선인의 언론매체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에는 매해 3월이 되면 3. 1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인 탑동공원, 덕수궁, 태화관의 봄의 풍경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3. 1 운동을 기억하려고 하였다. 《봄을 맞이하는 공원 (탑동공원-인용자) ...아, 3월을 맞이하는 팔각정...팔각정이요, 기억하고있느냐? 그 때, 그 일을?...기억이 상신 (尙新) 하는가? 그 때가 벌써 5년이지나가려고하는가. 우리는당신의품에서크게소리를내고 혼잡하던 때가. ...그 사람들이 (일본인-인용자) 우에노 (上野), 히비야 (日比谷) 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자랑한다》(춘파 <봄을 맞는 탑동공원> 《개벽》 제 33호, 1923년 3월 1일, 77페이지). 조선인계의 신문이나 춘파 (박달성-인용자)는 이와 같이 탑동공원의 팔각정을 의인화하여 3. 1 운동의 경험이 기억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다. 또한 조선국내의 사람들은 3. 1 운동기념일을 다양한 행동으로 기억하였다. 기념방법도 사회주의자들은 실천적인 "기념투쟁"을 벌리고 민족주의자들은 행사를 중심으로 하여 "기념식"을 열었다. 192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3. 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하고 살포하여 기습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는대한민국립시정부의기관지 《독립신문》이 3. 1 운동관련 기사를 많이 썼고 박은식은 《한국통사》(1915년 간행)의 집필에 이어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년 간행)를 썼고 《혈사》의 후편은 3. 1 운동을 취급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박은식의 저서를 얼마나 위험시하였는가 하는 것은 총독부가 16년간의 세월을 걸쳐 편찬한 《조선사》(전 35권)의 편집취지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통사라고 칭하는 내외조선인의 저서와 같은 것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펴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적(史籍)은 인심을 충혹(蟲

惑)하는해독이다》(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편 《조선사편수회사업기요》1938년간행). 조선총독부는박은식의저서가인심을현혹하고있으며그 해독은 헤아릴수없다고하여공명정확한사서를제공하는것이조선인의동화에효과가있다고편찬의목적을밝히고있다. 이것은조선사를저들의사정에맞게재구성하고근대사학의이름밑에서일제의침략과식민지화의정당성을노리려고한것이다. 시종독립운동과단결을호소해온박은식은1925년사망하는직전에” 독립운동을 한다면 전민족적으로 통일해서 하여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었다.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3. 1 운동기념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호소하려고 하였는가. 1932년 3. 1 운동 13주년기념일에 즈음하여 중화쏘베트공화국 중앙립시정부,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왕청현위, 왕청현 중한반일회 등의 명의로 격문이 발표되었다. 격문에는 중국공산당이지도하는 중한연합의 반일반제국주의, 반만주국, 반국민당, 반지주자산계급투쟁을 투쟁목표로 들었다. 또한 《일체 애국주의를 타도하자》, 《일본제국주의의 주구인 한국민족주의를 소멸하자》는 구호도 들었는데 이 《애국주의》, 《한국민족주의》는 《민생단조선독립당》이 선전하는 《만주의 조선에로의 분리독립》을 가리키는 고있다. 그러나 실패가 거의 없었던 《민생단》을 지나치게 의식한것은 중국공산당의 지도에서 볼수 있는 대국주의적인 경향과 결부되어 동만지역에서 많은 조선인공산자들이 숙청되는 비극을 일으켰다.

1936년에 결성한 항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3. 1 운동인식은어떠하였는가.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에는 《3. 1 운동에서는 전민족이 전국각지에서 반일봉기를 일으키고 현명하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기개를 온 천하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전조선민족은성별, 지위, 당파, 연령, 종교의 차이를 넘어 일치단결하고 일본제국주의자와 싸워 조국을 광복하고 진정한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이다》고 있는바와 같이 온갖 차이를 넘어서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한 3. 1 운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를 《3. 1 월간》이라고 명명한것은 민중적, 민족적인 운동이었던 3. 1 운동의 기억이 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성격과 부합된것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에서는 3. 1 운동은 통일적인 정치강령과 정확한 투쟁방침의 결여, 반일애국력량의 강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였다고도 지적하고있다.

대한민국립시정부의 리론가라고 불리우던 조소앙은 3. 1 운동과 관련하는 문장

을 두개 남기었다 (《제15주년 3.1운동에 임하여》, 《3.1운동 제21주년기념 선언》). 그는 3.1운동의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타도일본", "대한독립"이라는 공통의 정치적목표아래서"각 계급의 정치적협동》을 이룩할수 있었던것과 대중적 시위운동, 일본군경과의 육박전, 식민지기관에 대한 습격파괴와 같은 대중의 직접행동이 운동의 주력이 되었다고 하는 한편 민중을 결집하고 옳은 투쟁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도적혁명당"의 결여 등의 제한성을 지적하고있다.

재일조선인도 3.1운동기념일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행동하였다. 1920년부터 24년간에는 조선인류학생을 중심으로 히비야공원, 우에노공원등지에서 3.1기념집회를 개최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시위행진을 개시하려고 하자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 나카즈가와 (中津川) 조선인로동자학살사건 (22년)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운동을 계기로 류학생들과 로동자들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23년, 24년의 기념집회는 류학생, 로동자, 사상, 녀성 등체단체가 공최로 실시되었으나 곧 검거되고말았다. 1925년에는 다양한 공산주의나 로동자단체가 조직되고 류학생, 사상, 로동, 종교단체가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간의 갈등에 의하여 25년, 26년의 3.1기념투쟁은 공산주의체단체가 주도하였다. 1927년 2월에는 재일조선인단체협의회가 결성되고 운동의 폭이 넓어졌으나 이후 계속되는 예비검거나 대규모검거로 집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조선인단체가 일본의 단체어로 해소, 합류한 1930년대이후 30년대중엽까지는 전협 (日本勞動組合全國協議會) 과 반제동맹 (反帝同盟) 의 조선인활동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나 직장을 기반으로 한 간담회 개최와 삐라살포를 통하여 3.1운동을 기념하고 조선의 독립과 반제반전을 호소하였다. 조선인만의 민족단체가 해산되고 일본공산당계의 단체가 중심이되어 민족주의계와의 연대가 어렵게 되면서 30년대에는 20년대와 같은 통일된 대규모의 움직임은 볼수 없게 되었다. 다만 로동조합을 중심으로재일조선인의 생활에 밀착한 형태로 운동이 추진되고 일본의 단체활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로동자 및 활동가와의 연대애가 가까워되었다는데 있었다. 이 시기 공산주의나 로동운동에서의 조일연대는 해방직후에 되살아나 조선인운동과 일본의 사회, 로동운동과의 제휴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도 1920년에 3.1운동기념축하회가 개최되고 7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려운형이 사회를 하고 리동휘 국무총리, 손정도임시의정원 의장이 각각 축사를 하여 만세삼창을 한후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이듬해도 3.1기념식이 개최되었다. 그외 중국동북지방, 중국관내, 미국 등 해외의 조선인사회에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3.1기념식이 개최되었다.

2) 해방후의 기억

해방직후의 정국은 탈식민지를 둘러싼 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과의 대립이 점차 확대되어나간 과정이었다. 이러한대립은 3.1운동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남조선지역에서는 3.1기념식이 별개로 진행되었다.

1946년 3월 1일 해방후 최초의 3.1기념집회가 진행되었는데 민주주의민족전선측은남산에서,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측은 동대문운동장에서 별개로 개최하였다. 그것은 그전에 리승만과 한민당측이제안한 《민족대단결론(민족화합, 계급화해)》과 《임시정부법통론(인민공화국 부정, 신탁통치반대)》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저들의 반민족성, 반민중성을 덮어 숨기려고 하는 리승만, 한민당측의 제안에 대하여 조선공산당측은 3.1운동은 노동자, 농민, 소시민, 학생이주도한것이고 임시정부가 3.1의 정신을 구현하고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자주적통일민족국가건설의 주체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량진영은 별개로 집회를 실시하였던것이다. 이듬해의 3.1집회도 별개로 개최되었으나 군중간에서 류혈충돌이 일어나 16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다.

1948년에 들어서서 《단정반대구구투쟁》(2.7구국투쟁)을 전후하여 남조선로동당측은 이전과는 달리 3.1운동의 현실적인 교훈으로서 제국주의, 미국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해방투쟁의승리는청원, 애원 등으로서는달성하지못한다. 제국주의자와의 무자비한비타협적투쟁에의해서만성취할수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에게호소한다- 3.1운동29주년기념에 제하여》)고 주장하여단정수립을저지하기위한반제, 반미투쟁의중요성을대중들에

개선전하였다. 제주도에서의 4 8년 4. 3 민중항쟁은지난해의 3. 1 운동기념집회에대한 탄압을계기로일어났으나단정정권수립후는민족세력에대한탄압이강화되고 3. 1 운동기념 집회는관제의것만이허용되게되어 《5 0년전의 3. 1 운동이일제의침략에대하여민족이 쫓겨, 항거하였다면오늘의 3. 1 절은자유한국을무력으로적화하려고하는공산침략자와싸워 승리할수있는반공건설의범국민적궐기를결의하는날로되어야한다》(1 9 6 9년대통령기념사) 고한것처럼 3. 1 정신이 외곡되고 반공리념에 대치하고말았다.

북조선지역에서는1 9 4 6년 2 월 1 일에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조선민주당, 조선신민당, 천도교청우당, 각 사회단체를망라한 3. 1 운동기념공동준비위원회가조직되었다. 2 월 중순에는당북조선분국중앙제 4 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3. 1 운동기념에대한결정서를채택 하였다. 3. 1 운동기념주간이 설정되고 공장, 기업소, 농촌에서 강연, 담화 등의 해설 선전이 실시되고 출판보도선전, 예술선전, 생산돌격운동이 강화되었다. 3 월 1 일 평양 역앞의 광장에서 3. 1 운동 2 7 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가 개최되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김일성위원장이 《3. 1 운동 2 7 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폐회후 군 중시위가 실시되었다.

김일성위원장은연설에서 《1 9 1 9년 3 월 1 일은우리민족이<일본인과일본군대는물러 가라!>, <조선독립만세!>의구호를소리높이웨치면서강도일제를 반대하여전민족적투 쟁을전개한 날이며우리민족이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준 날입니다》, 《우리 는 우리민족의 이 고귀한정신을잊지말아야하며 그 정신을본받아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의 기발아래 굳게단결하여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 으로 분투하여야 하겠습니다》고 대회의 목적을 명시하시였다. 연설에서는 《3. 1 운 동을통하여우리인민은세계인류앞에조선민족은살아있을뿐아니라망국노의생활을원치않으 며자유와독립을위하여끝까지싸워이기겠다는정신으로충만되어있다는것을보여주었습니다》 고그의의를강조하시였다. 또한 3. 1 운동이실패한원인에대하여운동을지도하는혁명적계 급과혁명적당이존재하지않았다는것, 부르쵸아민족주의자들의무저항주의와정치적투기행 위, 국제적인지원을받지못하였다는것을지적하시였다.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적인새조선 의건설을위한과업으로서①친일본자, 반동세력의숙청,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전선의강화, ②증산운동과인민생활의안정화, ③토지문제의해결, ④교육제도의개혁, 민주주의적민족 교육제도의 실시, ⑤모스크바 3 상회의결정을지지옹호, ⑥쏘련인민과의친선관계강화를명

시하시였다.

평양역앞에서 진행된 경축대회에서는연단을향하여수류탄이투탄되고이를막으려고한쏘련
군장교노비첸코준위가중상을입는사태가일어났다. 범인은 남조선에서 파견된 백의사(白
衣社)의 결사대였다. 그후도 북조선의 간부들을 겨냥한 그들의 테로가 계속되였다.

재일조선인들도 본국과 보조를 맞추어 3. 1운동기념행사를 하였다. 여기서는 도교의
사례만을 보겠다.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은 1946년에 해방후 최초의 3. 1운동기념대회를 개최
하였다. 조련은 각 지방본부, 지부, 분회에 3. 1운동의 의의와 기념대회의 취지를 숙
지하고 《3. 1혁명기념투쟁》을 위하여 한달간의 준비기간을 정한후 3월 1일에히
비야(日比谷)공원대광장에서수만명이참가하고《3. 1혁명기념인민대회》와《혁명운
동희생자추도식》을개최하였다. 정면에는 제단, 좌우에태극기와조련기를장식하였다.

각 단체대표가 혁명운동 희생자추도문을 낭독한후 3. 1운동의 체험담과 정세에 관한
기념강연이 있었다.《조선완전독립 만세!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민주주의민족전선 만
세!》를삼창한후가두에나가행진을개시하였다. 연합군사령부앞에서태극기를 흔들고 련
합국에 만세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황거(皇居)나 경시청의 앞에서 《조선독
립 만세》를 외쳤다. 1947년은 2월에 조련,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각 조합, 문화예술단체, 신문사 등 21개단체가 《3. 1운동 28주년기념투쟁
협의회》를 설치하고 준비하였다. 3월 1일 히비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1만5
천명이 참가하여 《3. 1혁명기념대회》가 개최되였다. 삼일정치학원 학생의 혁
명가 제창, 추도식을 한후 개최되어 후세 다쓰지(布施辰治)의 경험담및 축사,
쏘련대표와 일본공산당대표, 중화일보, 산업별회의 의장, 오키나와인련맹, 전일본로
동조합회의 및 화교총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폐회후에 가두행진을 하였다.

한편 1946년10월에 결성한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은 47년 2월에 《민
단신문》제2호에 3. 1운동기념특집으로 《독립선언서》와 단장 박렬 《3. 1
기념일을 맞이하고》, 후세 다쓰지 《3. 1운동의 추억》을 게재하였다. 3월 1
일에 히비야공원 공회당에서 5천명이 참가한 《제28회 3. 1독립기념식전》
을 개최하였다. 연합군과 재일조선인 각 단체, 일본사회당, 각 단체가 래빈인사
를 하고 건청위원장의 개회사, 민단단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연합국에 대한 독

립청원서결의문 채택요청, 중화민국 주일대표단단장대리와 미국육군대위의 연설, 미군정청 연락관의 인사, 민단사무국 총장과 건청(建靑) 대표의 연설, 재일동포의 처우개선과 독립만세를 삼창하고 폐회하였다.

1947년의 량단체의 3.1운동기념대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큰 대립양상은 볼수 없었다. 조련은일본공산당과 중국, 소련, 오키나와인, 피차별부락민과 련휴하고 선렬의 추도에 중점을 두고 전국 각 지부별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민단은 일본사회당 및 대만, 미군정청과 련휴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으나 후세 다쁘지가 량단체에 관계하고있었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드리고 본국의 완전독립을 결의하는 등 공통점을 볼수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민단은 조련을반대하는사람들이나친일파에의하여조직되었으나초기민단에서 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사람들은건청에속하는그룹이며사상적으로는우파민족주의에가까웠다, 그러므로량단체는 표면적으로는대립하고있는것처럼보였으나그반면민족주의, 탈식민주의라는점에서서로상통하는감각이있었고오늘의민단측에서력사를돌이켜보아도어떤의미에서조련을출발점에두는형태로그리지않으면안된다고볼수있다. 현재 민단중앙본부의 건물안에 들어가고있는 재일한인력사자료관의 초기전시물에 조련관계가 많은것을 보아도 이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1948년에들어서고남조선단독선거의실시, 조선분단이현실화되는속에서3.1기념식을둘러싼량단체의대립이현저하게나타게된다. 조련은2주일간의준비를거쳐48년3월1일황거앞광장에서8천명이참가하여3.1운동29주년기념인민대회를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3.1혁명정신계승과완전자주독립획득, 자주적민주통일정부의수립, 미쏘량군의즉시철폐,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책동하는반동분자의숙청, 조선인민군만세, 일본인민과의공동투쟁을통해서생활의위기의타개등을호소하는구호가나타났다. 폐회후가두행진을하였다. 48년의기념대회에서는3.1운동의력사적의의가반제국주의투쟁이었다것을강조하고그러한교훈을살려현재의투쟁과제를반제국주의, 반미투쟁이라는자세를명확하게한것이였다. 한편민단은3월1일에히비야공원공회당에서3천명이참가하여《3.1운동기념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유엔의통일독립안지지, 인민공화국절대반대, 재류동포들의국제적지위향상, 재일동포들의준련합국민으로서의 처우의획득을호소하는구호를걸었다. 폐회후태극기와미국, 영국의국기를선두로 하여 가두행진을하였다. 이와같이1948년의조련과민단의대회가건구호는정반대였다.

조선반도에분단국가가수립된이후도북남과총련, 민단에서는 3. 1 기념집회가개최되나 그 차이가더욱선명하게된다. 북에서는 3. 1 운동에서의로동자, 농민의주도적역할, 그후의 민족해방투쟁에서의사회주의운동의역할을높이평가하고 《민족대표》의 외세의존성, 상해림시정부의 제한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의 정치과제로서 반미투쟁과 조국통일을 더욱 강조하였다. 남에서는 3. 1 운동에서의 《민족대표》의 지도력, 《비폭력투쟁》의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고 상해림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승공, 반북통일》의 정당성을 호소한다.

조선반도에서의분단정권의출현, 조선전쟁에의한북남분단의고정화는재일조선인에분단을전제로한《조국》과의 련결이 강화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때문에 총련과 민단에서의 3. 1 운동기념대회는 거의 북남《본국》의 내용과 거의 닮아지게 된다.

맺음 : 북남조선, 해외동포간의 력사대화 - 《민족적기억》의 건전한 계승을 향하여

3. 1 운동은 지금도 아직 조선인의나쇼날리즘의원점으로살아나가고있다. 력사적인 3. 1 체험은혈육화된《민족적기억》으로서해방후도계승되고현재의통일운동에결부되고살아가고있다. 말하자면민족적과제의최대공약수였던해방전의독립의과제(《삼일리념》)와해방후의통일의과제(《통일리념》)와는항상오바랩, 겹치고있는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 3. 1 운동사는현재의생을공유하는우리들모두의동시대사이고끊임없는관철을요하는《산력사》라고할수있다.

2000년 6. 15 공동선언이 열어놓은 환경하에서 2006년 5월에 《총련, 민단 5. 17 공동성명》을 낳았다. 그러나 민단내의 보수파의 역공세에 의하여 공동성명의 《백지철회》언명과 민단집행부의 퇴진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12년이 지나간 2018년에 세번째 걸친 북남수뇌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고 2019년에 3. 1 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는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후구체적인협의를한형적이보이지않고드디어 중지하기로되었다. 일본인의력사학자들속에서는 3. 1 운동사에서북남의인식의차이, 특히《민족대표》나 대한민국림시정부의 평가문제 때문에 공동개최를 걱정하는 소리가 일부에 있었다.

《민족대표》나 대한민국림시정부의 평가문제의 논쟁은 해방전의 사회주의진영과 민족

주의진영 사이에서 일어나고있었다. 전자는 평가가 낮고 후자는 반대로 높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평가는 해방후 분단체제하에서 북과 남에 그대로 이어졌다. 총련과민단도북남 《조국》의공식적견해를답습하고있다.

3. 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3. 1운동연구에서의 인식의차이를 메우기 위한 공동연구교류를 실현하는것이다. 아직도 조선인에 있어서 이론(異論)이 없는 조선근현대사상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식민지주의 및 분단이테올로기를 극복하고 북과 남, 해외동포가 공유하는 력사인식을 획득하는것은 북남의 화해, 통일의 기초로 되는 작업이다.

3. 1운동 등 조선근현대사연구의리해에서지금까지의이테올로기적인 편견, 자료의 일면적인해석을극복하고 객관적이고새로운연구성과에기초한력사인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는것이 중요하다. 열려진 새로운환경은반드시진실에보다 접근한 새로운력사인식을 낳고《민족적기억》이건전하게계승되어나간다. 그로인해서새로운환경은 보다 풍족한것으로되여간다고생각한다.

3. 1운동 100주년에즈음하여북과남, 해외동포연구자가한자리에회동하는3. 1운동에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이를 계기로 조선근현대사상을 공유하기 위한 력사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것을 꿈꾸고있다.

3·1운동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이용기
(교원대학교)

1. 머리말

3·1운동은 조선 역사상 최대 다수가 참여한 대중적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일대 도약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따라서 3·1운동은 당시부터 국내외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았으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에서 커다란 봉우리아자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3·1운동에 관해서는 남북/북남이 모두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민족(해방)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여전히 이질적인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북남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남북/북남의 역사학계도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이해·극복하고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기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남측에서 벌여왔던 3·1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남북/북남이 역사 인식의 공유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1운동에 관한 남측의 연구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3·1운동 50주년을 맞이한 1969년 이래 10년 내지 20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나왔던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정리한다.

2. 1960년대 후반 3·1운동 연구의 본격화 - 보수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3·1운동은 일제 식민지배 아래에서도 조선인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이었지만, 당연하게도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객관적 인식을 갖기는 대단히 힘들었다. 다만 3·1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던 조선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회고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을 전승하고자 하였다. 또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진상과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내외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¹ 해방 직후에도 3·1운동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방향과 관련하여 이견을 갖고 있던 좌우 세력이 자신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데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 결과 3·1운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매우 날카로운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3·1운동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기억투쟁의 성격을 가졌다.² 그렇지만 일제 시기와 해방 직후의 3·1운동 이해는 아직 학술적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짙게 담고 있었다.

남북/북남이 분단된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도 남측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3·1운동에 관해서도 회고적 저널리즘 수준의 글이 더러 씌어졌지만 학술적 연구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해방 이후 남측의 역사학계가 보수적 실증주의에 매몰되어 현재성과 실천성이 강한 근현대사 분야에 관심이 적었던 것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도 큰 몫을 했다고 판단된다.³

3·1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일보사가 한국사연구회와 역사학회의 도움을 받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이하 50주년)을 발간하면서 본격화되었다.⁴ 이 연구는 74편의 논문과 2편의 회고, 그리고 3·1운동 관련 지도, 자료 목록, 일지, 주요 사적(史蹟)을 정리하였으며, 1천 쪽이 훌쩍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이다. 책의 구성은 별도의 제목을 달지 않은 8부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별 논문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임의로 정리해 보면

¹ 지수걸, 1989, 『(총론)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3·1 민족해방운동사 연구, 청년사, 13~19쪽; 류시현, 2009, 「1920년대 삼일운동에 관한 기억」, 역사와 현실 74; 최우석, 2009,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 역사와 현실 74.

² 지수걸, 앞의 글, 19~24쪽; 박명규, 2009, 「탈식민과정에서 '3·1운동'의 문화적 재구성」, 박헌호·류준필 편,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박종린, 2019,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 한국역사연구회 편, 3·1운동 100년 1, 휴머니스트.

³ 강만길은 해방 이후 민족운동사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를 남측 역사학계의 연구 시각과 방법론에서 학문적 현재성이 결여되었던 점과 분단체제로 인한 냉전주의적 역사인식 때문에 좌우파가 공존하던 시기를 객관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곤란했던 점을 꼽고 있다(강만길, 1988, 「한국민족해방투쟁사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근현대 연구입문, 역사비평사, 64~65쪽). 한편 1960년대 초에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신석호는 정부의 독립유공자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청 문서고를 조사하기까지는 3·1운동에 관한 기본사료를 거의 알지 못했다고 회고하였다(신석호, 1969, 「3·1운동의 전개」, 동아일보사 편,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153쪽). 남측에서는 1969년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된 이후에야 독립운동 자료집이 체계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하였다(이정은, 2015, 「3·1운동 연구 100년」, 유관순 연구 20, 15~16쪽).

⁴ 동아일보사 편, 1969,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다음과 같은 편제를 이루고 있다.

- 1부 : 3·1운동의 배경 (논문 10편)
- 2부 : 3·1운동의 전개 (논문 18편, 회고 2편)
- 3부 : 3·1운동과 일제의 대응 (논문 6편)
- 4부 : 3·1운동과 외국의 반향 (논문 8편)
- 5부 :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논문 7편)
- 6부 : 3·1운동의 운동사적 영향 (논문 20편)
- 7부 : 3·1운동의 국제적 영향 (논문 5편)
- 8부 : 부록 - 자료

50주년 은 3·1운동의 배경-전개-주체-영향-의의 등 3·1운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며, 3·1운동 연구의 출발점을 닦은 기념비적 연구로 꼽힌다. 여기에서 정리된 3·1운동에 관한 해석은 1960년대 이후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의 집대성인 동시에 1970~80년대 남측의 ‘주류적’ 역사 인식의 바탕을 이룬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60년대라는 당대 남측의 시대적·학술적 상황을 반영하여, 반공주의에 입각한 일면성과 편향성을 드러내며 상층 엘리트 중심의 보수적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저서는 3·1운동에 대한 보수적 민족주의의 전형적 해석을 정초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사장 고재욱은 발간 취지를 밝힌 「서(序)」에서 3·1운동이 “우리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그 의의를 높이 사면서도, 3·1운동이 “민족적 단결의 전형”임을 강조하는 물계급적 민족주의 인식을 보이며, 글의 뒷부분에서는 반공주의에 입각한 반복적 사고를 표현하였다. 반공주의의 냉전적 사고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남측 중심의 흡수통일적 논리를 주장하거나 서구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⁵ 반공주의에 입각한 일면적 서술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엿보이지만, 특히 3·1운동의 국제적 요인에 관한 분석

⁵ 이병도는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의 결론부에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문제”는 “자유 남한”을 중심으로 “북한동포의 합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이섭은 「3·1운동의 사상사적 위치」에서 계급적 관점이 투영된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개념을 코민테른의 영향으로 몰아붙이고, 3·1운동이 “서구 민주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국권확립을 위한 자주독립정신”에 입각하였다고 보았다.

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만 다룬다거나,⁶ 3·1운동 이후 국내 민족운동에 관한 서술에서 사회주의 계열을 배제하는 것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⁷

50주년 은 가히 ‘박물지’라고 표현할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⁸ 구조적 인식이 취약하고 상층 엘리트 또는 주도층 중심의 서술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1운동의 배경을 다룬 1부에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없이 다양한 운동 주체의 활동만 부각되고 있다. 또한 3·1운동의 주체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를 주도했던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학생 세력의 상황과 활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뿐이며,⁹ 운동에 참여했던 광범한 대중에 관해서는 거의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그 결과 이 저서에서는 ‘민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함에도 사실상 아무런 개념적 의미 부여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¹⁰ 결국 주체로서의 민중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고 상층 인사들의 ‘행위’의 측면만이 서술될 뿐이다.

3. 1980년대 3·1운동 연구 시각의 분기 - 민족주의의 자장(磁場) 안에서

1) 민족주의적 해석의 보수성 약화

1989년 동아일보사는 3·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성과를 모아 3·1운동과 민족통일 (이하 70주년)을 발간하였다.¹¹ 이 저서는 20년 전에 발간한

⁶ 이보연, 「3·1운동에 있어서의 민족자결주의의 도입과 이해」

⁷ 유흥렬은 「3·1운동 이후 국내의 민족운동」에서 국내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에 관해서는 신간회 운동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지만, 이들의 계급주의적 태도 때문에 신간회가 분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창수는 「민족운동으로서의 의열단의 활동」에서 김원봉이 민족협동전선을 표방하면서 ‘좌경화’한 이후는 논의에서 배제한다면서 1926년까지의 의열단 활동만을 기술하였다.

⁸ 박현호·류준필 편, 2009,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7쪽.

⁹ 박한설, 「3·1운동 주도체 형성에 관한 고찰」

¹⁰ 김진봉은 「3·1운동과 민중」에서 ‘민중’에 관한 아무런 개념적 언급을 하지 않으며, 각지의 운동 주동체를 기독교·천도교, 학생, 농민,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중의 피해’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조선인 전체의 피해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제목과 달리 운동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정리하는 글이고, 그조차 ‘비폭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3·1운동은 ‘비폭력에 입각한 전민족적 항쟁’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지며, 여기에서 민중은 제목에만 존재할 뿐이다. 천관우 역시 「민중운동으로 본 3·1운동」에서 ‘민중(운동)’을 아무런 개념적 내포 없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폭력/비폭력’의 문제가 중심 테마로 설정되었는데, 그는 김진봉과 달리 민중의 폭력적 저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¹¹ 동아일보사 편, 1989, 「(3·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과 민족통일」, 동아일보사.

50주년 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그 동안의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주최측에서 쓴 「머리말」에서는 노태우 정권 출범 이래 추진된 '북방정책'의 영향을 언급하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거론되는 90년대의 문턱"에서 "3·1운동의 정신으로부터 민족통일의 원동력을 찾아"보고자 제목을 '3·1운동과 민족통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북방정책으로 인한 남북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겠다는 것이었다.

제1분과 : 3·1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논문 3편, 분과 토론)

제2분과 : 3·1운동과 민족통일 (논문 4편, 분과 토론)

종합토론 : 3·1운동을 보는 시각, 다양화가 절실하다

자료 : 「3·1독립선언서」 외 26점

70주년 은 이전처럼 3·1운동을 망라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쟁점을 부각시키고 북측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의 연구까지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에는 7편의 논문과 27종의 자료가 실렸는데, 두 개의 분과 토론과 종합 토론이 특히 흥미롭다. 논문 발표자와 토론자들도 20년 전에 비해 성향이 다양해지고, 국내외 학자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신진 연구자들을 다수 포함하였다. 그 결과 기존 20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논문과 토론의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수 일변도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개진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반공주의에 입각한 일면적·편향적 서술이 상당히 약화된 사실이다. 조동걸은 「3·1운동의 이념과 사상」에서 여러 독립선언서를 분석한 뒤 "선언서들이 한결같이 민주주의·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의 길도 열어 놓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일철은 「3·1독립운동과 민족통일」에서 3·1운동을 '근대사적 민족통일운동'으로 규정하고, 결론적으로 남북이 냉전적 대결자세에서 벗어나 각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쌍방이 민족내의 두 정치 단위의 관계를 불가침과 민족적 단결의 민족공동체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민족자결의 의지"를 발현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종합토론은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는데, 사회를 맡은 이만열은 ① 러시아 혁명과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 ② 운동 전개에서 '(비)폭력'

의 의미, ③ 항일독립운동을 넘어서는 민중·민족운동의 성격, ④ 북측에서 제기한 근대사 시대구분의 문제, ⑤ 3·1운동의 의의와 민족통일 등을 논의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흥미롭고 풍부한 논의를 이끌었다. 또한 종합토론에서 한홍수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민족통일과 연결시켜 이해할 때 “공화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가치도 수렴한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70주년 은 이전에 비해 구조적 인식과 계급적 분석, 그리고 민중에 대한 이해에서 진전된 면을 보였다. 김경태는 「3·1운동 참가계층의 사회경제적 성격」에서 비록 엄밀하지는 않아도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계층 분석을 시도하고, 결론적으로 “3·1운동은 극소수의 친일 지주와 예속자본가 그리고 친일 관료를 제외한 거족적인 민족해방투쟁이라는 통일성을 지니면서도 항일투쟁에 참여한 각 사회계층이 독자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일한 거족적인 ‘반제민족대연합전선’이었다기보다 각기 상이한 입장의 운동 논리가 현상적으로만 결합되어 나타난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다수의 논자가 3·1운동에서 민중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즉 3·1운동은 갈수록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민중의 반봉건적 요구가 결합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3·1운동은 단지 ‘항일독립운동’ 차원을 넘어 “민족적·민중적 운동”이자 ‘민족, 민중, 민주’가 결합된 ‘민족해방운동’으로 평가되었다.¹²

2) 민중적 민족주의의 등장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의 6월민주항쟁을 경과하면서 남측에서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저항 이념과 실천이 생겨났다. 1980년대에 청년 시절을 경험한 젊은 역사학자들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다.’는 명제를 실감하면서 ‘민중사학’을 제창하거나, 다분히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역사의 법칙성과 객관성, 그리고 역사학의 사회적 실천성을 담보하고자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들은 대체로 민중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민

¹² 이만열은 장시간의 종합토론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3·1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역사의 주체로서 노동자·농민이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민중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오늘날 민중화·민주화의 길이 보다 심도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족주의를 계승하여 ‘민중적 민족주의’ 경향을 띠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 등을 결성하여 진보적인 관점의 역사 연구를 추구하였다.¹³ 그리고 동아일보사의 70주년 이 발간되던 같은 시점에 ‘민중적 민족주의’ 관점에 입각한 3·1운동 연구의 성과를 모아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이하 민해운)를 발간하였다.¹⁴

같은 시기에 발간되었으면서도, 70주년 이 ‘북방정책’을 핵심적 시대 인식으로 삼았다면, 민해운 은 ‘6월민주항쟁’ 중심의 시대 인식을 보였다. 「책을 내면서」에서는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양상은 놀라우리만큼 3·1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전제 아래 “3·1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민해운 은 이전의 연구와 달리 1년 이상 필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연구진은 3·1운동의 배경, 전개 양상, 역사적 위치라는 3개 대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별로 4~6개의 소주제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저서는 공동 연구진의 논의를 종합한 총론과 13편의 논문, 심포지엄의 토론 요지, 3·1운동 관계 자료·논저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총론 :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의 교훈」

제1편 : 3·1운동의 배경 (논문 5편)

제2편 : 3·1운동의 전개양상 (논문 4편)

제3편 : 3·1운동의 역사적 위치 (논문 4편)

부록 1 : 3·1운동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토론요지

부록 2 : 3·1운동 관계 주요 자료·논저 목록

민해운 은 치열한 공동 연구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개별 논문의 차이를 넘어서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저서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3·1운동을 모순과 계급모순의 결합 속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으로 규

¹³ 1980년대 진보적 역사학계의 동향에 관해서는 배성준, 2013, 「민중사학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이용기, 2013, 「민중사학을 넘어선 민중사를 향하여」, 같은 책 참조.

¹⁴ 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엄밀한 계급분석이 시도되었으며,¹⁵ 특히 ‘민중’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총론』에서는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이 투쟁을 계기로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자각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이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이 정치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 하였고,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한 식민지 민중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을 점차 장악”했다는 의미에서 3·1운동의 “분수령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민해운은 3·1운동의 주체로 민중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존 연구에서 중시했던 ‘민족대표’ 또는 ‘부르주의 민족주의’ 세력의 역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민해운에 따르면, ‘민족대표’는 “3·1운동의 발발 계기를 일정하게 마련”하였지만, ‘외세의존적·무저항주의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민중의 적극적 진출을 지체”시켰다. 반면 지식인·청년학생은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은 농민, 노동자, 소부르조아지 등 민중”이었으며, “민중은 시위 당초부터 폭력투쟁을 지향”하였다.¹⁶ 따라서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며, 기성 역사가들이 “3·1운동의 교훈으로서 흔히 강조하는 무조건 대동단결론(계급화해론, 민족화합론)”은 “기만적 꾀변에 불과”한 것이다.¹⁷ 또한 3·1운동은 개항 이래 전개되어 온 민족운동의 두 가지 흐름, 즉 개화운동-독립협회-계몽운동의 부르주아적 계열과 민란-농민전쟁-의병전쟁의 민중적 계열이 합류한 것으로, “성격상으로는 부르조아 민족운동 단계에 해당”한다.¹⁸ 이러한 해석은 1980~90년대 남측 사회를 풍미했던 ‘민중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3·1운동 인식의 전형이 되었다.¹⁹

4. 2000년대 이후 3·1운동 연구의 새로운 동향 - 탈민족주의의 대두

1980~90년대 남측 사회가 민족과 계급의 변증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변혁

¹⁵ 임경석, 「1910년대 계급구성과 노동자-농민운동」

¹⁶ 정연태·이지원·이운상,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¹⁷ 지수걸, 『총론』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의 교훈」

¹⁸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¹⁹ 종합토론에서 민중운동사의 대가인 정찰렬은 당시로서는 젊은 역사학자들의 ‘도식적’ 이해가 서구의 발전 과정에 한국사를 끼워 맞추는 오류이라며 서구 중심주의적 역사 인식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체 토론의 맥락에서는 다소 돌출적으로 느껴지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2000년대 이후 진지하게 수용되고 있다.

하려는 열망에 충만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사회적·학술적 흐름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에 남측 역사학계에서는 맑스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진전, IMF 구제금융 사태 등을 경과하면서 이전 같은 거대 담론 중심의 과학적·실천적 학문 경향(‘민중사학’ 또는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을 대신하여, 사회의 복잡성과 중층성에 대한 관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실천에 대한 관심, 정치·경제를 넘어선 사회·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 등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학’이 젊은 학자를 중심으로 널리 수용되었다.²⁰ 이러한 연장선에서 3·1운동 연구도 이전과는 매우 다른 결을 보이게 된다.

3·1운동 90주년을 맞이한 2009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새로운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이하 묻다)를 발간하였다.²¹ 이들은 1989년에 민혜운 이 발간된 이후 오히려 침체 상태에 빠진 3·1운동 연구를 되살리되, “민족·민중이라는 기왕의 논제”에서 벗어나 2000년대에 등장한 “문화사적 연구 경향”을 3·1운동 연구에 접목시켰다. 이들은 ‘새로운 역사학’을 3·1운동에 접목한 이유가, “이 운동이야말로 조선 근대 민족주의의 보편적 보루”이므로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3·1운동에 대한 돌파가 남한 인문학의 새로운 진전에 불가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하였다.²² 즉, 이들은 3·1운동에 대한 운동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근대사의 핵심인 3·1운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역사학’의 가능성을 시도한 것이다.

묻다 는 이전 연구가 3·1운동의 배경-전개-영향-의의 등의 구성을 가진 것과 달리, ‘이념과 시각’, ‘주체와 제도’, ‘기억과 재현’이라는 부제를 단 3개 부로 구분하여 25편의 논문을 실고 있다. 기획자 스스로 토로하였듯이 3·1운동에 대한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기억과 표상’을 문제 삼는 논문이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²³ 또한 3·1운동의 성격에 관한 논문도, 3·1운동과 5·4운동을 통합적으로

²⁰ ‘새로운 역사학’에 관해서는 이용기, 앞의 글, 57~62쪽 참조.

²¹ 박헌호·류준필 편, 2009,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²² 박헌호·류준필, 「책머리에」

²³ 박명규, 「탈식민 과정에서 '3·1운동'의 문화적 재구성: 기억, 지식 그리고 권력」; 임종명, 「탈식민 남한, 3·1의 표상과 경쟁, 그리고 설립 초기 대한민국」; 정종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해방 이후 제작된 유관순 영화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양근애, 「해방기 연극,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 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로」; 이진규, 「3·1운동에 대한 개신교의 표상과 기억의 정치」; 한기형,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표상에 관한 관심은 묻다 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 역사연구회의 역사와 현실 74호(2009년 12월)가 「3·1운동, 기억과 기념」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구성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식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의 연구, 3·1운동을 민족운동이라는 일국사적 차원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명주의 차원에서 읽는 연구, 1910년대 전반 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역사의식의 태동에 주목하는 연구, 세계적으로 개조론이 확산되어 간 맥락 속에서 3·1운동을 해석하는 연구 등에서 보이듯이 이전처럼 ‘민족사적 의의’를 탐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²⁴ 특히 3·1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도의 서발턴 연구 관점을 수용하여 “만세시위에서 농민 주체의 형성이란 파편화된 민중 주체의 형성이지 민족 주체의 형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⁵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많은 학술행사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남한역사연구회가 발간한 3·1운동 100주년 총서 3·1운동 100년 (이하 백년)이다.²⁶ 이 저서는 남한역사연구회가 3년에 걸친 준비 끝에 출간한 야심작으로 5권에 걸쳐 49편의 논문을 실은 대작이다. 백년은 운동의 배경-전개-영향-의의라는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상식을 메타역사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3·1운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강화하고,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식민지-동아시아-세계라는 공간의 변동을 살폈다. 이에 따라 총서 5권을 다음과 같이 매우 다채롭고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 1권 - 메타역사 : 1부 인식과 서사의 흐름 (4) / 2부 연구사의 성찰 (5)
- 2권 - 사건과 목격자들 : 1부 사건의 재구성 (6) / 2부 만세시위의 목격자들 (5)
- 3권 - 정치와 권력 : 1부 식민통치의 구조 (5) / 2부 저항의 정치 역학 (4)
- 4권 - 공간과 사회 : 1부 공간과 경계 (6) / 2부 지역과 사회 (4)
- 5권 - 사상과 문화 : 1부 사상지형의 전환 (4) / 2부 문화 주체의 다양화 (6)

²⁴ 임형택, 「1919년 동아시아, 3·1운동과 5·4운동」; 미야지마 히로시, 「민족주의와 문명주의: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²⁵ 배성준,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²⁶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2019, 3·1운동 100년 1~5, 휴머니스트.

이들은 「총론」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시대 인식을 2016~17년에 벌여졌던 ‘촛불 항쟁’의 기억에서 시작하여 2018년부터 두드러진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 찾는다. 또한 **물다** 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가 단지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실증적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역사학을 모색하는 흐름’ 속에 있다고 자평한다. 「총론」에서는 “오래도록 근대사의 주체는 민족이었고 때론 민중이었다. 프레임 역시 민족 대 반민족이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양자 사이에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했다는 선언이 이뤄졌고 이분법적 구도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고, 이제 “수탈 대 저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해체하고 일제시기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선언하였다.²⁷

백년 의 기획자는 이 저서가 지향한 바를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다양한 주체와 시선’, ‘다층적 시각’, ‘문화사적 시각’이라는 키워드이다. 지금까지 3·1운동 연구가 주로 적극적 참여자에 주목하고 그들의 판결문을 주로 분석하였다면, 백년 은 평범한 참여 인물과 다양한 목격자를 살펴본다. 또한 식민지 조선 사회가 일원적이고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전제 아래 3·1운동 전후의 조선 사회를 도시 시위, 길거리 정치, 보통학교, 혁명의 여진이라는 화두로 접근한다. 나아가 이전의 일제시기 연구가 식민정책과 독립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반폭력사상, 평화사상, 인종담론 등의 사상사와 단군문화, 역사문화, 민족정체성, 여성정체성, 민족서사 등 문화적 현상과 영역으로 시야를 넓혔다. 그리하여 대중적 차원에서 여전히 “민족주의적 기풍”이 강한 것과 달리, 단일한 것발이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역사상”을 주조하고자 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거칠게 정리하자면, 3·1운동에 대한 남측의 연구는 독재정권 시기의 보수적·반공적 민족주의에서 민주화 시대의 민족주의의 진보 또는 진보적 민족주의를 거쳐, 21세기에는 탈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에서, 더 나아가서는 ‘민족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3·1운동

²⁷ 김정인, 「총론」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역사학의 모색」

에 관한 연구가 민족주의의 궤도에서 파동을 치면서 점차 그 자장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우리가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과 통일을 위해 '민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은 마야흐로 남북/북남이 반세기 넘게 지속된 적대와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적 시기이다. 오랜 동안 서로 다른 이념·체제·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차이를 차별·배제·억압이 아니라 상생의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면, 남북/북남의 역사학자들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선현의 지혜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

<부록> 3.1운동 관련 주요 저서의 목차

◎ 東亞日報社 편, 1969,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I.

- 韓祐勗, 「概論) 三·一運動의 歷史的 背景」
崔永禧, 「三·一運動에 이르는 民族獨立運動의 源流」
金成俊, 「三·一運動 以前 北間島의 民族教育」
朴亨均, 「三·一運動 當時 露領의 韓僑」
朴容玉, 「三·一運動 以前의 女性運動」
崔東熙, 「天道教 指導精神의 發展過程」
柳永益, 「朝鮮總督府 初期의 構造와 機能」
李鉉熙, 「三·一運動 以前 憲兵警察制의 性格」
李鉉淙, 「日本 對韓移民政策의 分析」
金龍德, 「三·一運動 以前의 答刑」

II.

- 申奭鎬, 「(概論) 三·一運動의 展開」 [附] 二·八獨立宣言 全文, 三·一獨立宣言全文
李善珩, 「三·一運動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導入과 理解」
朴漢高, 「三·一運動 主導體 形成에 관한 考察」
張龍鶴, 「三·一運動의 發端經緯에 대한 考察」
趙容萬, 「三·一獨立宣言書의 成立經緯」
朴賢緒, 「三·一運動과 天道教界」
金良善, 「三·一運動과 基督教界」
安啓賢, 「三·一運動과 佛教界」
許善道, 「三·一運動과 儒教界」
金大商, 「三·一運動과 學生層」
崔炯練, 「三·一運動과 中央學校」
崔 竣, 「三·一運動과 言論의 鬪爭」
丁堯燮, 「三·一運動과 女性」
S. 마젤, 「三·一運動과 外國人宣教師」
金鎮鳳, 「三·一運動과 民衆」
朴成壽, 「三·一運動에 있어서의 暴力과 非暴力」
李相玉, 「三·一運動당시의 流言」
車文燮, 「三·一運動을 前後한 受爵者와 親日韓人의 動向」
李熙昇, 「내가 겪은 三·一運動」
李炳憲, 「내가 본 三·一運動의 一斷面」

III.

- 尹炳奭, 「(概論) 三·一運動에 대한 日本政府의 政策」
李瑄根, 「三·一運動을 前後한 日本植民政策의 變貌過程」
鄭光鉉, 「三·一運動관계 被檢者에 대한 適用法令」
白淳在, 「三·一運動과 在韓日人の 動向」
申國柱, 「三·一運動과 日本言論의 反響」
金聲均, 「齋藤實 ‘文化施策’ 의 一側面」

IV.

- 白樂濬, 「三·一運動까지의 外國人の 對韓輿論」
F. 볼드윈, 「일손, 民族自決主義, 三·一運動」
李龍範, 「三·一運動에 대한 中國의 反響」
孫寶基, 「三·一運動에 대한 美國의 反響」
李 玉, 「三·一運動에 대한 佛·英의 反響」
金昌順, 「三·一運動에 대한 蘇聯의 反響」
鄭珖鎬, 「三·一運動以後의 民族運動과 外勢」
秋憲樹, 「1920年代 在滿韓人에 대한 中·日의 政策」

V.

- 李丙燾, 「三·一運動의 民族史的 意義」
洪以燮, 「三·一運動의 思想史的 位置」
金斗憲, 「獨立宣言書의 思想史的 檢討」
金俊輔, 「三·一運動의 經濟史的 意義」
金泳鎬, 「三·一運動에 나타난 經濟的 民族主義」
千寬宇, 「民衆運動으로 본 三·一運動」
金成植, 「外國學生運動과 三·一運動의 比較」

VI.

- 柳洪烈, 「(概說) 三·一運動 以後 國內의 民族運動」
金庠基, 「(概說) 三·一運動 以後 海外의 民族運動」
崔永植, 「三·一運動 以後의 民族言論」
金根洙, 「1920年代의 言論과 言論政策 -雜誌를 中心으로-」
吳天錫, 「三·一運動 以後의 民族教育」
趙璣濬, 「三·一運動 以後 民族企業의 一類型 -京城紡織을 中心으로-」
高承濟, 「三·一運動 以後 民族資本의 生態分析 -銀行業을 中心으로-」
姜東鎭, 「三·一運動 以後의 勞動運動」

李兌榮, 「三·一運動 以後의 女性運動」
 金昌洙, 「民族運動으로서의 義烈團의 活動」
 白 鐵, 「1920年代의 社會相과 文學像」
 全光鏞, 「三·一運動이 文學創作面에 끼친 影響」
 文定昌, 「軍國 日本의 朝鮮經濟收奪 樣相」
 李英俠, 「三·一運動을 前後한 日本資本主義와 한국」
 徐相喆, 「日政下 한국經濟의 成長과 二重構造」
 金龍國,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成立과 初期의 活動」
 洪淳鈺, 「漢城·上海·露領臨時政府의 統合過程」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申基碩,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國際的 地位」
 朴榮圭, 「三·一運動 以後 在日韓人學生의 獨立運動」

VII.

高柄翊, 「一次大戰 後의 아시아民族運動 -趙南을 中心으로-」
 鄭世鉉, 「學生運動으로 본 三·一運動과 中國의 五·四運動」
 金洪喆, 「1919年 前後 愛蘭·北·印의 民族運動」
 金宗炫, 「1919年 前後 日本經濟의 動向」
 曹瑛炫, 「20世紀初 日本勢力膨脹의 再評價」

VIII.

「三·一運動週別狀況地圖 (7葉)」
 「1919年前後 極東地圖 (1葉)」
 「三·一運動관계 資料目錄」
 「三·一運動관계 日誌」
 「三·一運動관계 主要史蹟」

◎ 동아일보사 편, 1989, (3·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과 민족통일 , 동아일보사.

* 제1분과 : 3·1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趙東杰, 「3·1운동의 이념과 사상 - 독립선언서와 선언자의 비교분석」

金敬泰, 「3·1운동 참가계층의 사회경제적 성격」

愼鏞廈,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와 세계사적 의의」

토론 : 이만열(사회), 강제인, 구대열, 김윤식, 박영석, 서대숙, 안병직, 윤경로, 이균영

* 제2분과 : 3·1운동과 민족통일

徐大肅, 「3·1운동에 대한 北韓史觀」

韓俊光, 「중국 동북지방과 3·1운동」

權熙英, 「소련에서의 3·1운동연구」

申一澈, 「3·1독립운동과 민족통일」

토론 : 최영희(사회), 강제언, 김영호, 박명규, 한홍수

* 종합토론 : 3·1운동을 보는 시각, 다양화가 절실하다
(사회) 이만열, (토론) 주제 발표자 및 토론 참석자 전원

* 자료 : 3·1독립선언서 외 26점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 총론

지수걸,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의 교훈」

* 제1편 : 3·1운동의 배경

조 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정세」

조재희, 「일제 초기 식민지 국가기구의 형성과 그 성격」

권태억, 「식민지 초기 일제의 경제 정책과 조선인 상공업」

정태현, 「1910년대 식민농정과 금융수탈기구의 확립과정」

임경석, 「1910년대 계급구성과 노동자·농민운동」

* 제2편 : 3·1운동의 전개양상

이운상·이지원·정연태,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이운상, 「평안도 지방의 3·1운동」

이지원, 「경기도 지방의 3·1운동」

정연태, 「경남 지방의 3·1운동」

* 제3편 : 3·1운동의 역사적 위치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고정휴, 「3·1운동과 미국」

김 철, 「문학상에서의 3·1운동」

노경채, 「국의 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 부록 1 : 3·1운동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토론요지

* 부록 2 : 3·1운동 관계 주요 자료·논저 목록

◎ 박헌호·류준필 편, 2009,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제1부 : 이념과 시각

1. 3·1과 5·4

임형택, 「1919년 동아시아, 3·1운동과 5·4운동」

2. 민족과 문명

미야지마 히로시, 「민족주의와 문명주의: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3. 정의와 평화

장인성, 「3·1운동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

4. 진화론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5. 개조

허 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6. 낭만

박헌호, 「3·1운동과 '낭만'의 조우: 해방운동의 해방성과 육체성」

7. 종교

장석만, 「3·1운동에서 종교는 무엇인가」

이민용, 「불교의 근대적 전환: 이능화의 문화론적 시각과 민족주의」

* 제2부 : 주체와 제도

1. 미디어와 주체

천정환,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2. 농민적 주체

배성준,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3. 지역성과 주체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경기도 안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식민적 주체

유선영, 「3·1운동 이후의 근대 주체 구성: 식민적 근대 주체의 리미널리티」

5. 학력주의

정병욱, 「3·1운동과 학력주의의 제도화」

6. 젠더

공임순, 「친교의 젠더 정치와 제국적 '육망의 감정'의 회로: 기독교계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7. 학생

소영현, 「3·1운동과 '학생': '학생-청년'의 담론적 재편성 고찰」

8. 작가

박현수, 「3·1운동과 근대 문인의 의식: 김동인, 염상섭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9. 국가

김동택, 「한국 근대국가 형성과 3·1운동」

* 제3부 : 기억과 재현

1. 개신교의 표상

이진구, 「3·1운동에 대한 개신교의 표상과 기억의 정치」

2. 법정의 기억

함기형,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3. 기억의 향상

이혜령,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4. 표상 경쟁

임종명, 「탈식민 남한, 3·1의 표상과 경쟁, 그리고 설립 초기 대한민국」

5. 기념과 기억

양근애, 「해방기 연극,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 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로」

6. 유관순 표상

정중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해방 이후 제작된 유관순 영화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7. 일본의 기억

나리타 유이치, 「3·1 독립운동의 일본 연구」

8. 미래의 기억

박명규, 「탈식민 과정에서 '3·1운동'의 문화적 재구성: 기억, 지식 그리고 권력」

◎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2019, 3·1운동 100년 , 휴머니스트.

1권 - 메타역사

* 1부 : 인식과 서사의 흐름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

박종린,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

김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이지원,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운동의 표상과 전유」

* 2부 : 연구사의 성찰

도면희, 「3·1운동 원인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

배석만,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에 관한 서술과 시대성」

한승훈,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홍종욱, 「북한 역사학계의 3·1운동 연구」
박준형, 「전후 일본 조선사학계의 3·1운동 연구」

2권 - 사건과 목격자들

* 1부 : 사건의 재구성

윤소영, 「고종독살설 재검토」
오노 야스테루, 「2·8독립선언의 전략성과 영향」
김정인,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의 재구성」
장규식, 「학생단 독립운동과 3월 5일 시위」
김강산, 「3·1운동의 탄압과 학살, 그리고 제노사이드」
최우석, 「3·1운동의 마지막 만세시위 검토」

* 2부 : 만세시위의 목격자들

최우석, 「청년 양주흡, 혁명을 꿈꾸다」
서동일, 「유학자 김황의 3·1운동 경험과 독립운동 이해」
노상균, 「윤치호, 방관과 친일 사이」
이민성,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다로의 눈에 비친 3·1운동」
김승태, 「외국인 선교사가 바라본 3·1운동」

3권 - 정치와 권력

* 1부 : 식민통치의 구조

이형식,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구조 개혁과 조선
도면희, 「1910년대 한국의 형사재판제도와 3·1운동」
마쓰다 도시히코, 「'무단정치기' 조선의 헌병경찰과 위생행정」
장 신, 「3·1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사법 대응」
신주백, 「3·1운동과 일본군 동향, 그리고 제국 운영」

* 2부 : 저항의 정치 역학

허영란, 「3·1운동의 네트워크와 조직, 다원적 연대」
주동빈, 「3·1운동 초기 경성 시위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
이태훈, 「1920년대 전반 국민협회의 정치활동과 참정권 청원운동의 한계」
홍종욱, 「3·1운동과 비식민화」

4권 - 공간과 사회

* 1부 : 공간과 경제

- 배석만,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와 조선 경제」
백선례, 「1918년 독감의 유행과 혼란에 빠진 조선 사회」
한승훈, 「3·1운동 경험자가 바라본 아일랜드 독립전쟁」
김제정,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과 조선인 자본가」
이정선, 「공간에 속박된 사람들: 식민지 조선의 민사 법제와 공통법」
가토 게이키, 「한국 동북부의 공간 변용과 3·1운동」

* 2부 : 지역과 사회

- 박 현, 「도시 시위의 계보와 3·1운동」
기유정, 「식민지 군중의 '길거리 정치'와 식민자의 공포(1920~1929)」
이기훈, 「1910년대 보통학교의 구조와 지역 3·1운동」
고태우, 「3·1혁명의 여진과 조선 사회」

5권 - 사상과 문화

* 1부 : 사상지형의 전환

- 김영범, 「3·1운동과 혁명적 민중폭력의 사상」
이지원, 「3·1운동 시기의 '평화'사상」
허 수, 「1920년대 전반 한국 언론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미쓰이 다카시, 「'동포'와 이민족 사이: '일조동원론'과 인종 담론의 모순」

* 2부 : 문화 주체의 다양화

-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류시현, 「3·1운동 직후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조선 미술 재발견」
이하나, 「3·1운동 이후 '활동사진대회'를 통해 본 식민지 대중의 문화 체험과 감성공동체」
이숙화, 「3·1운동과 단군문화」
이지원,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김정인, 「3·1운동, 죽음과 희생의 민족서사」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안부조사

니시무라 나오토
(일본 도우시사대학)

머리말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M7.9의 대지진이 일본 관동(關東)지방에서 발생했다¹. 한조사에 의하면, 관동대지진때 사망자·행방불명자는 총 105,385명으로 추정되어 있다². 그러나 이 조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만 주목한 것이다. 관동대지진은 학살사건이라는 또 다른 피해 측면이 있는 일이었다. 그중 하나가 일본군대와 경찰, 일본인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사건이었다³.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불령선인(不逞鮮人)이 불을 놓고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등의 유언비어가 이리저리 퍼지고, 2일에는 계엄령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계엄령 아래서 일본군대와 경찰,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 수천명의 조선인들과 수백명의 중국인들, 수십명의 일본인들이 학살되었다⁴.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살에 대한 가해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와 일본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학살의 실태와 그에 대한 국가 권력과 일본인의 참여에 대

¹일본에서는 '關東大震災(관동대진재)'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는 '관동대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에서는 '간또대진재' 또는 '간또대지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는 '瓮东大地震(관동대지진)'이라고 지역에 따라 용어·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의 일반적 사용법에 따라 '관동대지진'이라고 편의상 사용한다.

² 諸井孝文·武村雅之, 「關東地震(1923年9月1日)による被害要因別死者数の推定」, 『日本地震工学会論文集』, 4권 4호, 2004년 6월, 25쪽.

³대표적 연구로서는 姜徳相, 『新版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靑丘文化社, 2003년 ;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03년이 들 수 있다.

⁴조선인 학살 희생자의 수에 관한 조사는 당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일본 사법성(司法省)은 233명, 조선총독부는 83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당시 상하이(上海)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조사는 6,661명, 도쿄제국대학교 교수 요시노사쿠조(吉野作造)의 조사는 2,613명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姜徳相·琴秉洞編,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년, 326~488쪽). 현재 독립신문 조사의 숫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상규명 조사가 아직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희생자의 수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해조금씩 밝혀지고 있다⁵. 그러나 살아남은 조선인보다 학살된 조선인, 죽은 일본인에 관심이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 대상 지역이 피해 지역의 일본 관동 지방에 집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관동대 지진을 '죽음' 뿐만 아니라 '삶'에 주목해보면, 지금까지 보이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부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 조선에 눈을 돌려보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지진과 조선인에 관한 정보에서 조선인의 '삶'을 둘러싼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동포들의 안부에 조선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여론이 환기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관동대 지진에서 조선인의 안부를 둘러싸고 당시 조선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 19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 동안에 조선에서는 지진에 의한 조선인의 안부 정보 = 조선인 생존자 명부가 조선어 신문을 통해 발신되고 있었다. 그 중 동아일보는 지진이 발생한 일찍부터 조선인 동포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스스로 조사 보고를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지진 시기의 조선인 안부를 둘러싼 당시 조선의 상황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조선인 안부 조사에 먼저 주목한 것은 도쿄(東京)의 시민 단체였다. 1980년대 '관동대 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여 위령하는 모임'⁶이 지진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⁷, 그 조사 과정에서 "<동아일보> 사쪽에서 지진

⁵ 선행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노·슈운,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の二つの流れについて—アカデミックなアプローチと運動的アプローチ」, 田中正敬·専修大学關東大震災史研究会編, 『地域に学ぶ: 關東大震災—千葉県における朝鮮人虐殺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日本経済評論社, 2012년; 노주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 104집, 2013년 7월; 줄고, 「近年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研究の動向と課題」, 『朝鮮史研究会會報』, 202호, 2016년 3월 등을 참고.

⁶ 1992년 '관동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3년, 모임의 회원이 중심으로 '그룹봉선화'(현재는 '일반사단법인 봉선화')를 발족하여 현재는 '증언듣기·쓰기' '사료·문헌의 수집' 뿐만 아니라 추모식의 개최나 추모비 '관동대지진 때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모비'(2009년 9월 건립)의 건립 활동, 학습회와 답사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⁷ 제 1차는 1983년 8월 26일 ~ 9월 7일 (참가자 2명), 제 2차는 1985년 8월 23일 ~ 8월 28일 (참가자 2명), 제 3차는 1986년 8월 2일 ~ 8월 22일 (참가자 5명), 제 4차는 1989년 9월 20일 ~ 9월 23일 (참가자 2명) 총 4번 실시했다고 한다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追悼する會編, 『風よ 鳳仙花の歌をはこべ』, 教育史料出版會, 1992년).

후신문에 '안부조사'가 거제된 것을 가르쳐주"고, "마이크로 필름을 구입하고", "한명 한명의 이름과 원적을 카드에 쓰고", 중복을 제외한 "5,160 인분의 도·군 별 명부"를 작성했다고 한다⁸. 그 성과는 보고서 및 저서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어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이다⁹. 다만, 그들이 활동한 목적은 당시 안부 조사를 밝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 조사를 단서로 한 조선인 유가족에 대한 방문 조사에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반응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에서 전개된 구제(救濟) 활동과 그 성격을 고찰한 성주현은 지진에 대한 당시 보도와 사회적인식을 고려하면서 관 주도이든, 자발적이든, '거국적(學國的)'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별도로 의연금(義捐金)을 모은 것,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⁰. 또한 김강산은 조선에서 조선인측과 일본인측에서 각각 결성된 단체의 성격이 '민족문제'와 '재난'이었다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¹¹. 그러나 조선인측의 구제 활동에서 전개된 조선인 안부 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조선 사회의 상황을 개관(概觀)한 다음에, 조선에서 구제 활동을 조선인측의 활동에 한정하여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당시 실시된 조선인 안부 조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는 받아들여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⁸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追悼する會, 앞의 책, 190 쪽.

⁹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追悼する會, 앞의 책; 『第1~3次渡韓報告書』,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慰靈する會, 1983~1986년(그릅봉선화소장).

¹⁰ 성주현, 「1923년 관동대지진과 국내의 구제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집, 2014년 12월; 성주현,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 『東北亞歷史論叢』, 48호, 2015년 6월; 성주현, 「관동대지진 직후 재일 조선인 정책 - 식민지 조선 언론을 중심으로」, 청암대학교 재일 코리안 연구소 편, 『재일 코리안에 대한 인식과 담론』, 선인, 2018년.

¹¹ 김강산, 「관동대학살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과 대응 - 사건 이후 조선에서 결성된 단체를 중심으로 -」, 『사림』, 60호, 2017년 6월.

1.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1) 지진 발생 직후의 보도와 <동아일보>

지진이발생한다음날 2 일,조선에서는'노비(濃尾)지방(일본 아이치현과기후현주변)'에서지진이있었다등정보가착종하고있다가¹²,이듬해 3 일에는 '도쿄시거의전멸', '요코하마시는전멸인가'등일본 관동지방에서큰지진이있었던것을보도되었다¹³.그 이후지진의피해상황이조선에본격적으로알려지게되었다.

한편, 조선인층의반응을보면동아일보는초기 일찍부터조선인동포의안부걱정을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念慮되는 朝鮮人の消息"라는제목으로'도쿄부근에흩어져있는수천의학생과로동자, 그들의생사존몰(生死存沒)은과연어떻게되어있는것인가. 아아! ...후략)'라고가장먼저조선인동포의안부를걱정한것도<동아일보>였다¹⁴.왜동아일보가 9 월 3 일자초기에일본에 있는 '朝鮮人の消息'을걱정하는기사를게재한것일까.

아마도동아일보는 9 월 2 일시점에서독자적루트로정보를얻을수있었던것같다. 동아일보에대한치안당국의감시기록을보면당시상황을엿볼수있다.서울종로경찰서장이 조선총독부관계자에게보낸문서에서동아일보사편집부장李相協(리상협)이 "유학생안부와지진상황시찰"을위해 "[9 월 2 일]오후 11 시에기차로내지[일본]로출발할예정"이라는정보를전달하고있다.리상협은일본에도향하고있는사람의가족 4 명에게서 "안부취조"의의뢰를받았을 것 같고 "[안부] 결과를신문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그들에게전했다고한다¹⁵.그리고동아일보는특파원을 2 일밤에파견시킨것을 9 월 6 일사설에서전하고¹⁶,그특파원·리상협은 3 일경에는부산을출발해,시모노세키(下関)를

¹²『京城日報』,1923년 9월 2일자,조간.

¹³『京城日報』,1923년 9월 3일자,조간.『毎日申報』,1923년 9월 3일자. 『東亞日報』,1923년 9월 3일자. 『朝鮮日報』,1923년 9월 3일자.

¹⁴『東亞日報』, 1923년 9월 3일자.

¹⁵ 京城鍾路警察署長→朝鮮總督府警務局長·警察部長·京城地方法院檢事正, 京鐘警高秘第 10066 号, 「京内狀況報告ノ件」, 1923년 9월 2일자에 수록된 「第3報 東亞日報記者東上ノ件」, 1923년 9월 2일 23시 15분 (『關東震災ニ對スル情報』 - 『京城地方法院檢事局編綴文書』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¹⁶『東亞日報』, 1923년 9월 6일자.

통해 5 일에는오사카(大阪)에¹⁷, 11 일에는도쿄에도착했다¹⁸.

(2) 「월경」의 경계

이러한상황에서조선총독부가가장경계하고있었던것은사람,정보의이동이다. 특히 '국경'간을오가는조선인들의 '월경'이다. '국경'이란하나는조선과중국의사이,또 하나는조선과일본의사이이다.

그무렵일본에서는 9 월 4 일의 '각의(閣議)결정'에의해 '시모노세키에서조선인의입국을거절하는' 정책이채택하여¹⁹,내무성(內務省)이주도하면서조선에서조선인들의도일(渡日)을저지하기시작했다. 그리고조선총독부와협의한후²⁰,조선에서도 9 월 6 일부터조선인들의도일저지를실시하게되었다²¹.그결과, 도일한 조선인의수는 1923 년 1 월부터 8 월까지월평균 1 만명을넘었지만, 같은해 9 월이후에는월평균 1,000 명이하가 되고크게격감하게되었다²².

9 월 3 일내무성의통첩에의해조선인들의도일을삼가하도록'권설(勸說)'해달라고요청을받으면서丸山鶴吉(마루야마츠루키치)조선총독부경무국장은 9 월 8 일, 조선인의도일이제한되는목적은일본에가서방황하지않도록'조선인보호'를위해실시하고,'인심이진정하고질서가있을 때까지'는도일을'삼가하'도록담화를발표했다²³.

¹⁷『東亞日報』, 1923 년 9 월 7 일자.

¹⁸『東亞日報』, 1923 년 9 월 11 일자.

¹⁹「震災ニ付テノ処置ヲ為スコトノ件」, 『閣甲第 143 号』, 1923 년 9 월 4 일자 (『公文別録·内閣·大正十二年~昭和十九年·第一卷·大正十二年~昭和八年』(請求記號 : 別 00231100))(일본 국립공문서관 Digital Archive).

²⁰『京城日報』, 1923 년 9 월 4 일자,조간.

²¹『京城日報』, 1923 년 9 월 8 일자,석간. 치안당국은당시정책을 '법적으로는아무런근거도 없이비상수단으로사실상도항을저지하려고 하는것에지나지' 않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朝鮮總督府警務局編, 『朝鮮の治安狀況 大正 13 年 12 月』, 不二出版, 2006 년, 222 쪽).

²² 朝鮮總督府警務局編, 「關東地方震災ノ朝鮮ニ及ホシタル狀況」, 『齋藤実關係文書 書類の部 1』, 115-1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編, 『朝鮮の治安狀況 大正 13 年 12 月』, 不二出版, 2006 년.

²³『京城日報』, 1923 년 9 월 9 일자,석간. 처음에는거의모든조선인을제한대상으로 실시하고있었지만, 1923 년 12 월 9 일이후,점차도일허가조건이완화되면서 1924 년 6 월 1 일부터도일제한조치는일단 '철폐'되었다 (山脇啓造, 『近代日本と外国人労働者—1890 年代後半と 1920 年代前半における 中国人·朝鮮人労働者問題—』, 明石書店, 1994 년, 216 ~ 221 쪽 ; 김광열,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1910-1940 년대』, 논형, 2010

조선총독부·내무부에 의한 조일(朝日)간의 조선인도일금지체제가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리상협이 일본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위와 같은 조치가 실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후 조선에서는 지진 피해 지역에도 향함을 희망하는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리상협외의 거의 모든 조선인 개인, 단체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에서 조선에 건너가는 사람들의 '월경'을 막을 수 없었고, 지진 후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왔다²⁴. 이러한 상황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가장 고려가 필요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기의 조선인 귀환자에 관한 조사표를 내부에서 극비리에 작성하여 각 관계기관에서 공유하고, 조선인들의 귀환이 급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⁵.

(3) 조선인 유학생의 귀환

이러한 경계 체제 속에서 지진 피해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를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李周盛(리주성) (토요(東洋)대학 유학생, 원산출신)과 韓昇寅(한승인) (메이지(明治)대학 유학생, 평남출신) 2명의 유학생이 조선에 돌아왔다. 그들은 재해지도교를 지진이 발생한 후 며칠을 거쳐 탈출한 후, 기차로 나가노(長野)를 통해 나고야(名古屋)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이동해왔다. 그리고 9월 4일, 관부 연락선으로 시모노세키를 출발한 다음날 5일에 부산에도 도착했다²⁶.

리주성과 한승인은 지진 후 피해 지역에서 조선에 돌아온 첫 조선인이었다. 그들은 조선인 학살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이고 증언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 귀환하는 도중 기차와 연락선에서 조선인 형사에게 향후 언동에 주의하도록 '경고'를 받고 있었지

년, 84~85 쪽).

²⁴ 줄고, 「関東大震災下における朝鮮人の帰還」, 『社会科学』, 47권 1호, 2017년 5월을 참고.

²⁵ 高警第 3,411号, 「震災後ニ於ケル朝鮮人帰還及渡航狀況ニ関スル件」, 1923년 10월 12일자 (『變災及救濟關係雜件(別冊) 関東地方震災ノ件 朝鮮人問題及其反響 第二』, 6-3-1-8-17-1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²⁶ 그때 모습은 『동아일보』(1923년 9월 7일자)에 일부 게재되어, 韓昇寅의 회고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韓昇寅, 『東京이 불타때—関東大震災遭難記—』, 대성문화사, 1973년).

만, 그들은 학살의 사실을 폭로할 생각으로 돌아왔다²⁷.

그리고 서울에도 도착하자 두 사람은 조선신문사의 안내에 따라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방문하고 도쿄에서 견문을 말했다. 그러나 그 인터뷰는 치안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의 조선인 통역관이 배석하여, 두 사람의 발언을 속기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⁸. 그 내용은 곧 호외로 발행하려 했지만, 검열을 받아 발행조차 못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1면에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고 호외의 내용을 소개하려 했으나, 조선인 학살 사건과 유언비에 대한 부분은 게재하지 못했다²⁹. 그래서 '관동 지진 경험담'이라는 강연회를 열고 지진의 실태를 알리려 한 이들은 종로 YMCA 회관에 가고자 하는 가운데 9월 6일 오후 3시 경서대문경찰서 고등원에 의해 '함구(緘口)' 때문에 체포됐다³⁰. 이에 따라 마루야마는 각도지사(道知事) 앞으로 '내지(일본)에서 귀환한 자들의 언행에 특히 주의하고 이에 관한 연설회, 그외 집회와 같은 것은 절대로 금지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도록 엄중한 경계에 임하도록 지시를 내렸다³¹.

위와 같은 조선인 유학생의 귀환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 학살의 정보가 조선 사회에 조금씩 들어왔다고 보인다³². 예를 들면, '도쿄에 가면 조선인을 ○○하라'고 피해 지역에서 외치고 있었다고 김근식이 동아일보에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기사로 하려고 하면 치안당국의 의해 검열되었고, 그 내용은 복자(伏字)로 되어 버렸다³³. 당시 그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신문등에서 공개하면 해당 기사는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²⁷ 한승인, 『東京 震災 韓人 大虐殺 탈출기』, 갈릴리 문고(NewYork), 1983년, 90~91쪽.

²⁸ 韓昇寅, 앞의 책, 1973년, 70~74쪽.

²⁹ 『東亞日報』, 1923년 9월 7일자.

³⁰ 한승인, 앞의 책, 1983년, 95쪽. 『京城日報』, 1923년 9월 7일자.

³¹ 朝鮮總督府警務局編, 「震災關係警戒取締ニ関スル重要通牒」,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115-11.

³² 朝鮮總督府警務局編, 「関東地方震災ノ朝鮮ニ及ホシタル状況」,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115-16.

³³ 『東亞日報』, 1923년 9월 9일자. 검열을 받은 기사는 치안당국의 내부분서에 기록되어 있다 (「火原を脱出して 無事歸國迄」, 『東亞日報』, 1923년 9월 9일자 (朝鮮總督府警務局図書課編,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録(東亞日報)』, 朝鮮總督府警務局, 1932년, 110쪽)).

2. 조선인의 「구제」활동

(1) 유학생 단체의 결성

그러면 스스로가 지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를 입은 조선인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진 재해에 대응하고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선인 단체는 '재경성(京城)일본유학생회'(이하, 유학생회)이었다³⁴. 여름방학에 조선에 돌아오고 있었던 유학생 등 약 30 명이 중심으로 9월 4일에 발기하고 6일에는 100 명이 천도교당에 모여, 조사위원 3명과 상무위원 5명을 선발하고 구제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에 파견하는 조사위원 3명의 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구제금'의 모금을 호소하면 즉시 66 엔 20 전, 나중에 납입 신청으로 83 엔 50 전을 모였다. 6일부터 조선인의 일본도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자가 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도모하기 위해 여론을 환기하고 현재 당국의 단속을 완화시키는 것'을 요구했다³⁵.

7일에는 유학생의 가족을 중심으로 '재도교유학생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가 발족했다. 400 명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유학생과 그 가족만 참석시키고 노동자의 가족과 방청객은 퇴장시켰다. 학부모회 모임에서는 상무위원 10명을 선출한 다음에, 구제 정책을 부상자에 대한 치료, 식량 지급, 안전지대로 구조하는 것 등을 결정하고, 2명의 유학생위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구제금'과 위원의 출장 여비에 충당하기 위해 가족 1인당 10 엔 이상의 기부를 모집했는데, 그 자리에서 현금 99 엔, 나중에 납입 신청이 204 엔에 달했다³⁶.

또한 지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함흥에서는 유학생의 가족 40 여명이 3일, 동아일보 함흥지국에서 회의하고 조사·구제위원의 파견을 시도했지만, 치안당국

³⁴ 이하, 조선에서 조선인 유학생의 활동에 대해서는 裴姪美,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留學生の動向」, 關東大震災 90 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會編, 『關東大震災 記憶の継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2014 년을 참고했다.

³⁵ 京城鍾路警察署長→京城地方法院檢事正, 京鐘高秘第 10421 号의 2, 「臨時在京日本留學生會ノ件」, 1923 年 9 月 7 일자 (앞의 자료, 『關東震災ニ對スル情報』).

³⁶ 京城鍾路警察署長→京城地方法院檢事正, 京鐘高秘第 10452 号의 2, 「在東京留學生父兄會ノ件」, 1923 年 9 月 7 일자 (앞의 자료, 『關東震災ニ對スル情報』).

에허가되지않았다³⁷. 평양에서도유학생이나가족 등이평양 YMCA 에사무국을두고'일본유학생회'를발족시켰는데, 이쪽도지진 피해지역에위원의과견이허가되지않았다³⁸. 특히평양은유학생의수가많기때문에서울과함께가장치안당국에경계되고있는지역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³⁹. 이외에도개성,금산, 인천, 전주, 진주등에서도조직이만들어졌지만, 조사·과견은모두허가되지않았다⁴⁰.

(2) 「구제회」의결성

또한이날'재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의 발기회가열리고,다음날 8일에발기인 92명이이름을올렸고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이하,구제회)가정식으로결성되었다. 사무소는서울경운동에있는천도교중앙대교당에설치하고의연금의모금기간을 9월말까지로 했다. 그리고동아일보를통해광고와활동정보를거의메일에게재했다. 피해를입은조선인들의응급구제를목적으로유학생회와연계하여지진 피해지역의조사를예정하고있었다.실행위원은다음의 15 명이선정됐다.

위원장 : 兪星濬(유성준)

위원 : 高元勳(고원훈),李範昇(리범승),朴勝彬(박승빈),張友植(장우식),

洪泰賢(홍태현),金炳喜(김병희),趙南駿(조남준),李潤載(리윤제),

李仁(리인),宋鎮禹(송진우)

회계 : 張斗鉉(장두현)

상무위원 : 辛泰嶽(신태옥), 崔麟(최린), 任政鎬(임정호)⁴¹

³⁷『東亞日報』,1923년 9월 8일자.

³⁸『東亞日報』,1923년 9월 8일자.『東亞日報』,1923년 9월 12일자.

³⁹裴始美,앞의 논문, 211 쪽.

⁴⁰開城警察署長→京城地方法院檢事正,開高秘第 4157 号,「東京地方震災=関スル件 第二報 罹災留學生ノ救済策」, 1923년 9월 7일자 (앞의 자료, 『關東震災=對スル情報』). 『東亞日報』,1923년 9월 12일자.『東亞日報』,1923년 9월 19일자.

⁴¹『東亞日報』,1923년 9월 10일자.

실행위원을보면, 유성준은안동교회를설립한인물로알려지고민립대학설립기성회등에참여하고 있었다. 고원훈은보성전문학교교장, 박승빈과리인은변호사로활동중이었다. 그리고송진우는동아일보사장, 최린은천도교의중진으로활동하고있는등,조선사회의각계의조선인유력자가많았다.또한사상도입장도다른사람들이모여있어,이른바 '좌우합작'운동이었다고도말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동아일보는구제회를발족한것에대해다음과같이사설을 통해 조선사회에널리호소하고있다.

...(전략)...朝鮮人을迫害한것은事實이었으며그迫害의原因과程度가果然 어떻게됐는지는杳然히그真相을알수 없다...(중략)...罹災同胞의狀況 調査와慰問의使命을帶하고急遽히赴往한本社特派員은즉그消息이漠然하거니最善의勞力を다하여滿天下同胞의期待에不負할것을確信한다...(중략)...今番의東京在留朝鮮人同胞救濟會가發起케廣히義捐의募集에着手케同胞의 同情이集中되기를切期하는것이다⁴².

여기에서 '학살'이아닌 '박해'라고표현하고있는것은전술한유학생의증언에대한조선총독부의감시에도볼수있듯이, 조선인학살을표현하는언동에대해서는조선총독부에 의한탄압이있었기때문이다. 또는 '박해'라고굳이 표기하면 '학살'을암시하는의도가있었을지도모른다.

따라서조선총독부는종로경찰서를통해'이번도쿄에서조선인을학대(虐待)하고또한가혹한더단속을받고있는것에대해재료를모집하여론을환기하고당국에대항하기위해조사를 구질하여실정을사찰시키는데노력하고있다'고경계하며그들의활동을방해하고있었다⁴³. 그래서구제회는유성준, 리범승, 박승빈을교섭위원으로선출해종로경찰서

⁴²『東亞日報』, 1923년 9월 10일자.

⁴³京城鍾路警察署長→京城地方法院檢事正, 京鐘高秘第 10471 号의 2, 「在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發起會ノ件」, 1923년 9월 8일자 (앞의 자료, 『關東震災ニ對スル情報』). 『朝鮮日報』, 1923년 9월 14일자.

당국과협상을시작했다⁴⁴. 그 결과일반인들의의연금을받지않는대신, 구제회발기인간의 '동정금'만을모으기로합의했다⁴⁵.

(3) 조선인 단체의 「해산」

위의협상을통해그들은활동을일단계속할수있었지만, 결국치안당국의의도대로조선인자신의단체활동은약체화해가게된다.

예를들면, 유학생회는지금까지작성한도쿄의유학생명부를도쿄에있는조선유학생학우회에보내고, 모은의연금 161 엔 70 전을, 100 엔은동아일보특과원의여비로, 14 엔 60 전은잡비로, 나머지모든 47 엔 50 전은구호회에기부한결과로, 해산하기로결정했다⁴⁶. 또한구제회는지금까지모은의연금 2,000 엔을동아일보특과원리상협과도쿄기독교연합회뜻基善(오기선) 목사에게맡겼다. 그리고구제사무도 2 명에위탁함으로써구제회는해산하게되었다⁴⁷. '자발적'에해산했다고하지만, 치안당국에의해중중방해와탄압이있었던것을감안하면사실상강제적 '해산'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3. 조선인 안부 조사

(1) 동아일보

구제회가발족한지 2 주후 9 월 22 일,도쿄에파견된리상협에서제 1 회안부조사결과가조선에전해졌다. 조사결과는각피난소별로본적지, 이름, 나이가기재되어,약 350 명의조선인생존자명부가기재되었다⁴⁸. 그후, 제 1 회부터제 6 회까지조선인생존자명부가기재되며 1,278 명분의생존자가기재되었다⁴⁹.

⁴⁴『朝鮮日報』, 1923년 9월 15일자.성주현,앞의 논문, 2014년, 192쪽.

⁴⁵『朝鮮日報』, 1923년 9월 17일자.『東亞日報』, 1923년 9월 18일자.성주현,앞의 논문, 2014년, 192쪽.

⁴⁶『東亞日報』, 1923년 9월 23일자.

⁴⁷『東亞日報』, 1923년 9월 23일자.

⁴⁸『東亞日報』, 1923년 9월 22일자.

⁴⁹『東亞日報』, 1923년 9월 22·24·30일자.다음달 10월 1·5·8일자의 6번 게재되었다.표 1를 참조.

표 1 : 조선인안부조사명부게재날짜 (동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게재자수
제 1 차	9/22,4 면				354
제 2 차	9/24,4 면				245
제 3 차	9/30,3 면				272
제 4 차	10/1,3 면				77
제 5 차	10/5,4 면				246
제 6 차	10/8,2 면				84
				합계	1,278

주 1 : 게재자수는성명이명기되어있는사람만계산했다. 안부·행방불명자등을포함.

그러나동아일보특과원에의한 6 번째안부조사보고(1923 년 10 월 8 일)를마지막으로⁵⁰,조선인안부조사를비롯한조선인에의한진상규명활동은일단중단할수밖에없었다.

(2) 조선총독부

'구제'활동과동아일보의안부조사를비롯한조선인측의움직임에대해 9 월 10 일, 마루야마조선총독부경무국장은'어떻게든빨리안부를아는방법을강구하고 싶다. 전도(全道)각경찰서에통첩하여그관내의도쿄유학생주소의조사, 보고를지시했다'는담화를발표했다⁵¹. 동아일보의조사와비슷한시기에조선총독부도직접지진 피해지역의경찰서,수용소에서 '보호'된조선인들을중심으로안부조사를시작한것이다.

조선총독부는도쿄에 있는출장소에의한조사결과를 1923 년 9 월 23 일부터 10 월 17 일까지 16 회분을조선어신문의<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거의매일게재하는형태로발표했다⁵².

⁵⁰『東亞日報』, 1923 년 10 월 8 일자.

⁵¹『京城日報』, 1923 년 9 월 10 일자,석간.

⁵²<조선일보>와<매일신보>의경우, 1923 년 9 월 23 일부터 10 월 17 일까지총 16 회조선총독부의조사결과